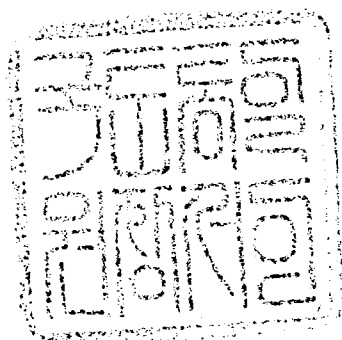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6.



연구기관 : 북한문제연구회

연구책임자 : 박 재 후

目 次

1. 序言(問題의 提起, 研究의 目的, 對象)	3
2. 北韓의 價值體系와 對韓國觀	6
가. 理論的 背景	6
나. 北韓의 價值體系	10
다. 北韓의 韓國觀	13
라. 北韓의 對南 戰略과 最近動態	17
마. 小 結 論	24
3. 北韓이 보는 韓國의 基本強弱點	26
가. 政治部門	28
나. 外交部門	34
다. 經濟部門	38
라. 軍事部門	42
마. 社會部門	45
바. 小 結 論	48
4. 北韓이 보는 韓國의 社會階層別 強弱點	50
가. 強者(反革命勢力)	51
(1) 地 主	51
(2) 買弁資本家	54
(3) 反動官僚層	59

나. 弱者(革命의 動力)	63
(1) 勞動階級	64
(2) 農 民	70
(3) 인 테 리	73
(4) 青年學生	76
(5) 小資本階級	77
(6) 民族資本家	78
(7) 小 結 論	78
5. 結 論	80

1. 序 言 (問題의 提起)

「그리스」의 英雄 "아키테"는 強力하였지만 弱點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弱點은 발굽치였다. 鐵針 한個로 발굽치를 찢러 그는 복숨을 잃었다.

「相對方의 힘이 優勢하여도 큰 힘에는 반드시 虛點이 있는 法이다. 明白히 有利한 가운데도 거기엔 穢인가 不利한 것이 있으며 反對로 明白히 不利한 가운데서도 有利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陰은 完全한 陰이 아니고 陽도 完全한 陽이 아니다」
孫子は 「이 事實을 알고 그것을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는 者는 名將뿐이다」라고 말했다.

맑스는 唯物 弁証法에서 모든 事物이나 現象은 그 内部에 相互 矛盾된 對立關係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理致들을 自己들의 「革命」鬭爭에 巧妙하게 適用하는 者는 바로 現代共產主義者들이었다.

레닌, 毛沢東, 카스토로 등은 그 代表的인 者들이었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도 北韓은 韓國에 比較해서 人口, GNP, 國際的 力量面에서 劣勢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虛點을 노리고 있다.

1.21 事態 三陟, 蔚津浸透事件 등은 그 典型的인 事例였다. 그 모든 兇計가 모두 失敗로 돌아 갔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繼續 赤化野慾을 拋棄치 않고 있다.

지난 70년의 労働党 第5次 大会에서도 金日成은 「南朝鮮에서 革命力量을 育成發展시키는 課業에서 重要な 것은 원수들의 内部矛盾과 弱点을 비롯한 온갖 可能性을 能熟히 利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對話가 開始된 以後에도 北韓은 겉으로는 南北의 平和와 民族의 團結을 내세우면서도 그 뒤에서는 軍備拡張과 國際的 進出 및 南韓浸透의 迂回化等 이른바 저들의 3大革命力量強化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北韓의 그와 같은 諸動態는 毛沢東의 「談談打打」式 協商戰術과 「東声西打」의 계리라의 原則에 依해서 上部에선 合作을 내세우면서도 下部로 浸透해 보겠다는 저들의 意圖로 評價된다.

그와 같은 北韓의 意圖에 미리 對備하기 위하여 昨年 10월에 政府는 有備無患의 原則下에 「10月維新」을 斷行하고 國家体制의 改竊과 더불어 모든 部門에서 우리의 脆弱点을 是正補完하는 維新作業을 進行中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는 南北韓에 造成된 異質的 價值體系와 戰略的 概念의 差異로 우리의 脆弱点을 보는 南北韓間에는 적지않은 乖離가 存在하여 古來로 戰爭의 原因가운데 하나인 相互間의 偏見과 短見 및 誤算을 發生시킬 可能性이 不無하다는 事實이다.

더욱 過去 中國의 例로 보아 協商期엔 相互 煙幕戰術로 自己正체를 偽裝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으므로 彼此間에는 보다 深刻

한 誤算이 介在될 念慮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彼此間의 誤算을 排除함은 勿論이고 北韓의 浸透를 防止하기 위한 維新体制의 早速한 確立方案의 하나로서 우리 自身이 보는 自體의 矛盾과 弱點만 아니라 北韓이 보는 그것도 아울러 把握하고 그를 是正補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거를 더 나가서 北韓과의 對話를 通해서 저들의 偏見과 短見도 是正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課題는 南北韓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을 比較 檢討하여 이와 같은 民族的, 國家的 要請에 多少나마 副應하고자 한다.

특히 本課題는 이와 같은 目的達成을 위해 社話期에 北韓의 主된 浸透對象이 될 下部體系 即 우리의 社會, 文化部門에 研究의 焦點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課題의 處理에 있어선 우선 北韓의 價值體系와 北韓의 對南戰略에서 北韓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을 導出하기로 한다.

우리와는 달리 北韓의 意識構造는 共產主義的 革命觀과 對南目的 意識 및 金日成의 戰略으로 形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北韓의 價值體系와 對韓國觀

가. 理論的 背景

韓國統一問題를 革命的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는 北韓의 價值體系와 韓國觀은 맑스·레닌主義的 弁證法과 毛沢東의 矛盾論을 그의 理論的 基礎로 삼고 있는것 같다.

北韓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다고 하였다. (※ 註 北韓新憲法 第4條 參照)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北韓은 「맑스·레닌主義的 原則을 中國의 情勢에 創造적으로 適用」하여 中國大陸을 赤化시킨 毛沢東의 實踐論과 矛盾論을 基礎로한 新民主主義革命戰略을 教條적으로 適用하려는 傾向이 濃厚하기 때문이다. 1969年1月の 第4期 第4次人民軍黨全會會議에서 金日成은 過去 6.25當時에 失敗했던 蘇聯式 教條主義的 戰法을 批判하고 「中國사람들의 瓦解戰法」을 讚揚한바 있다.

그리고 南北對話以後의 北韓의 協商戰術과 迂回的 南浸工作 및 對南心理戰의 多樣化等은 毛의 戰法과 類似점이 많다. 따라서 北韓의 韓國觀과 對南戰略 戰術을 把握하기 위해선 맑스·레닌主義的 弁證法 및 毛式 矛盾論에 依拠 金日成의 思考方法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을것 같다.

共產主義者들은 弁證法의 3大原則中 「量의 質로의 轉化 및 反轉」의 原則에 依해서 階級革命의 可能性을 導出하는바 毛沢東은

이 原則을 根拠로 그의 「實踐論」을 發展시켜 中國의 革命狀況을 判斷하는데 利用했다.

그리고 毛는 「對立物의 統一」原則 即 「矛盾法則」을 土台로한 그의 「矛盾論」으로 相對方의 힘은 瓦解弱화시키기 위한 戰略을 發展시켰으며 또 「否定의 否定」原則에 依拠 그는 協商戰術 및 게리라戰의 展開方式을 研究發展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添言할 것은 現代共產主義者들이 "힘"에 依한 革命 即 暴力革命을 傳統化하려는데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根拠와 事實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即 1871年 「파리 .코뮌」 失敗以後 맑스 .엔겔스에 依하면 共產主義革命은 美 .英 .和等 先進國에서는 平和的으로 이룩될 可能이 있지만 後進國에서는 "強力"히 革命의 "지렛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맑스 .엔겔스 選集第11卷下 P. 400. 1872 및 同 第14卷下 P.332, 1878 參照)

여기서 레닌 .스탈린 .毛沢東等 現代共產主義者들은 暴力革命을 敎條的으로 信奉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러시아"와 中國에서 成功할 것이다.

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即 唯物弁証法의 3大原則中 「量의 質로의 轉化 및 그 反轉」의 原則에 依하면 「모든 事物과 現象은 그 内部의 相互對立된 諸原因 .性質 .傾向等의 鬪爭에 依해서 變化發展되는바 어느 程度까지는 質的 變化없이 量的으로 變化하나 量的 變化가 일어나서 낡은 質을 새 質로 換置되며

새 質로 轉化된 事物을 다시 量的 變化의 過程으로 移行되며 그 逆도 眞理라는 것이다.

그의 社会的 現象으로서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社会에서의 階級鬭爭(革命運動)은 어느 段階까지는 資本主義를 打倒하지 않지만 一定한 段階에 到達하면 이것을 打倒하고 社會主義로 移行된다」고 主張하며 또 그것을 믿는다.

共產主義者들은 이와같은 社会的 質的 變化만을 革命이라고 한다. 그리고 革命的 原動力은 階級鬭爭이며 그 手段은 "強力" 即 暴力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힘"의 哲學을 信奉하지만 "프로레타리아"의 勢力이 基本的으로 劣勢에 있고 資本家 階級이 強한 條件에선 革命的 手段인 "힘"의 動員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그들은 "힘"의 源泉을 探究하고 그의 動員等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여기서 共產主義者들은 「弁証法」의 3大原則中 核心이 되는 「對立物의 統一原則에 依存한다. 그에 依하면 모든 事物과 現象은 그 內的 矛盾 即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 그리고 死滅과 發展과의 兩面을 가지고 있는바 이 兩者의 對立矛盾이 運動과 變化 및 發展의 原因 또는 原動力이 되나 이 對立關係는 또 相互 排斥하면서도 他面에선 서로 引合되어 어떤 하나의 事物, 現象속에서 統一을 이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對立物의 鬭爭과 統一은 어떤 事物이나 現象

을 낮은 狀態에서 새 狀態로 또 낮은 段階에서 높은 段階로 變化發展시킨다고 한다.

그럼으로 資本主義社會에서의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과의 對立矛盾은 階級鬭爭을 不可避하게 하고 階級鬭爭의 動力인 勞動者階級은 資本主義社會를 必然的으로 社會主義社會라고 하는 統一的 社會로 移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이 「對立物의 統一」原則을 矛盾法則이라고도 했는데 그는 맑스가 提示한 이 原則은 弱者가 强者를 征服하기 위한 法則으로 研究發展하여 「러시아」를 共產化했고 또 毛沢東은 그것을 다시 中國의 條件에 創造的으로 適用하여 强者를 弱화시키는 "矛盾論"을 研究發展하여 中國大陸을 征服하는데 成功하였다.

특히 毛沢東의 矛盾論은 맑스·레닌의 矛盾法則에 中國古代의 陰陽說과 中國의 옛兵法을 調和發展시킨 것으로서 中國赤赤의 歷史가 立証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主義的 最高形態의 矛盾論으로 評價되고 있다.

맑스·레닌의 矛盾論은 資本主義社會의 階級間的 矛盾對立關係를 把握利用하는데 重點은 두었지만 毛의 矛盾論은 主로 半封建的 後進社會의 矛盾對立關係를 把握하는 理論이며 거기에 다시 「強點에는 弱點이 있고 弱點에도 強點이 있기 마련」이란 陰陽說과 「이 事實을 알고 그것을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는 者는 名將뿐이다」라는 孫子兵法을 加保하여 主로 相對方의 矛盾과 弱點把握에 利用할 뿐만 아니라 그의 意識的인 造作에도 利用되고 있다.

이와 같이 唯物弁証法이나 矛盾論은 反体制的 革命意識과 힘의 哲學에서 出發되며 弱者가 强者를 征服하기 위해 研究된 共產主義的 「마키아베리즘」이다.

나. 北韓의 價值體系

北韓의 統治集團은 자들의 最大綱領인 「朝鮮勞動黨 規約」(1966.9.18 採択)에서 「朝鮮勞動黨은 朝鮮民族과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며 勞動者, 農民, 知識人等 모든 勤勞者들 가운데서 勤勞大衆의 利益을 擁護하는 先進的 闘士들로서 組織되며~맑스.레닌主義를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하며~그의 當面 目的은 共和國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採択한 그들의 最低綱領인 「社會主義憲法」에서도 그들은 「全體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이며~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基礎한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會主義的 共產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基因하며~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으며~全國的 範圍에서 外勢를 물리치고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여 完全한 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北韓의 價值體系가 다음과 같이 南北韓 對立의 基本要因이 된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卽

첫째,北韓은 自體의 最高綱領이라고 할 수 있는 黨規約과 그의 最底綱領인 社會主義憲法에서 저들 黨과 政權이 全體民族과 韓半島를 代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事實과 國際法을 無視하고 大韓民國을 否定한 것이다.

韓國은 歷史面에서만 아니라 總人口面에서나 G N P面에서 우리民族의 宗主國이며, 특히 1948年 巴里에서 開催됐던 第2次 U N總會는 韓國政府를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正式承認한바 있었다. 그리고 過去 韓半島를 統治하던 日本 亦是 1965年 韓日協定에서 韓國의 代表權을 認定하였다. 그리고 한가지 特異한 것은 北韓의 政黨인 「朝鮮勞動黨」이 全體民族의 利益을 代表하였다고한 事實인데 이것은 우리의 論理로선 到底히 納得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 그것은 階級政黨임을 自勉하면서 그처럼 全體朝鮮民族을 代表하는 것은 大韓民國政府의 權威權能과 우리 民族全體의 尊嚴性에 對한 反體制的 挑戔인 것이다.

둘째,北韓은 主權問題에 있어서도 勞動階級을 基本으로 하는 「人民」을 主權의 源泉으로 삼고 있는데 이 亦是 革命階級과 人民을 同一概念으로 보는데 基因된다고 하겠으나 國民全體를 主權의 源泉으로 삼는 우리의 價值體系에 挑戰하는 反體制的 革命論인 것이다.

셋째,北韓은 黨規約에선 「맑스·레닌主義」를 그리고 新憲法에선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各各 自身의 指導的指針으로 規定했는데 前者를 最高綱領, 後者를 最底綱領으로 삼는 저들의 論理에서

불대엔 何等의 矛盾이 없겠으나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 義挙 및 5.16 革命의 理念 即 純粹한 民族精神을 民族的指導指針으로 삼고 있는 우리 大韓民國과는 全혀 相反된 反民族的 思想이라고 하겠다.

넷째 「國家目標」에 있어서 우리는 民族의 統一과 繁榮을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데 比해서 北韓은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最終目標로 삼고 民族의 至上念願인 統一을 中間目標로 삼으며 當面目標은 大韓民國政府를 轉覆하는데 두고 있다. 이것 亦是 大韓民國과 우리 民族全體의 尊嚴을 無視한 反政府 및 非民族的 暴力根性を 表現한 것이다.

다섯째, 特히 祖國의 統一路線에서도 우리는 憲法上 平和的 民主的 原則에 依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나 北韓은 黨規約上 暴力的, 階級的 原則을 내세우며 新憲法에서도 「平和的 統一云云」했으나 그것은 大韓民國政府를 轉覆한 뒤에 樹立될 人民政權과의 統一條件이지 基本的으로 暴力路線을 拋棄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北韓의 價值體系는 全的으로 맑스·레닌主義的 階級革命意識과 "強力" 即 暴力의 哲學에서 出發되고 또 그것으로 貫徹된 反體制的, 反民主的, 反民族的인 것으로서 우리 大韓民國의 그것과는 正反對이며 이것은 南北對立關係의 基本要因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價值體系로선 理解하기 困難한 것이다.

※ 註 1968.9.7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創建 20週紀念 慶祝大會에서 한 報告」에서 金日成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에 關한

우리의 主張은 決코 美帝國主義者들과의 鬪爭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民族의 원수들과의 그어떤「妥協」이나 社會制度의 이른바 <平和的移行>에 關한 <理論>과는 아무런 共通性도 없다.

우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오직 南朝鮮에서 現傀儡政權을 뒤집어 업고 進步的 勢力들이 政權을 권 다음에야 實現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最近에도 北韓은 拉北漁夫들에게 「一切의 反革命勢力은 應當 暴力으로서 粉碎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 註 歸還漁夫 이창락의 진술, 정보사령부신문조서 715~08, 73.2.13)

다. 北韓의 韓國觀

南北韓의 基本力量을 比較해 볼때 地下資源은 北韓에 偏在하고 있으나 氣候條件 住民分布, G N P, 軍事力(U N 軍包含) 및 國際協力關係에서 韓國이 北韓보다 優勢하다는 事實은 自他間에는 勿論이고 第3國에서 까지 共認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은 韓國에서의 共產革命을 繼續 追求하고 있다.

唯物史觀과 唯物弁証法的革命意識을 가진 北韓은 韓國의 優勢는 絶對的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北韓은 自己들의 史觀에 依해서 韓國을 後進社會로 보고 北韓社會를 先進的인 것으로 規定하였다. (※ 註, 上揭 朝鮮勞動黨 規約은 北韓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

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者 云云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量의 質로의 轉化 및 反轉의 原則」에 依해서 韓國의 強点에도 반드시 矛盾對立關係가 있을 것으로 봄과 同時에 「矛盾法則」에 依拠 韓國社會의 強点을 弱化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金日成의 이와 같은 韓國觀은 過去 中國을 半封建社會 및 半殖民地로 規定한 毛沢東의 史觀과 矛盾論에 基礎를 둔것 같다.

1956年6月18日 發表된 論文에서 毛沢東은 「우리 앞에는 두가지 社會的 矛盾이 있다. 即 敵對矛盾과 人民內部的 矛盾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矛盾을 正確히 區別하자면 人民은 무엇이고 敵은 무엇인가를 確實히 알아야 人民이란 概念은 나라마다 다르며 各己의 歷史的 時期마다 다른 內容을 가진다.

中國의 境遇에서 말한다면 抗日戰爭時期에는 모든 抗日階級, 階層, 社會集團은 모두 人民의 範圍에 들었으며 日本帝國主義, 漢奸, 親日派는 모두 人民의 敵이었다. 解放戰爭의 時期에 있어서는 美帝國主義와 그 앞잡이 即 官僚부르조아지, 地主階級 및 同階級을 代表하는 國民黨反動派는 모두 人民의 敵이었으며 이들 敵對階級에 反對하는 모든 階級, 階層, 社會集團은 모두 人民의 範圍에 들었다.

敵我間의 矛盾은 敵對的 矛盾이며 人民內部的 矛盾은 勤勞人民들 속에서 말하자면 非敵對的 矛盾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敎條的 公式에 依拠 金日成은 韓國內部的 勢力關係를 둘로 区分하여 그 하나를 「美帝와 그 앞잡이들인 地主, 買弁資本家,

反動官僚輩들과 그들의 搾取統治(韓國政府)」로 하고 다른 하나를 広範한 人民大衆 即 「勞動者, 農民, 進歩的 青年學生, 知識人, 愛國的 軍人, 一部 愛國的 民族資本家들과 小資產階級으로 하여 이 兩 大勢力間의 矛盾을 敵對矛盾으로 規定하며 前者를 革命對象으로 물고 後者를 革命的 動力으로 보고 있다. (※ 註 5次 党大會에서 한 金日成의 報告演說 參照)

그 理由로서 金日成은 「美帝의 南朝鮮 強占과 그 植民地 統治는 南朝鮮人民들이 겪고 있는 모든 不幸과 苦痛의 禍根이며 南朝鮮의 한중도 못되는 地主, 買弁資本家 反動官僚들은 美帝의 侵略政策을 充實히 執行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밑에 南朝鮮人民들을 抑壓하며 苛酷하게 搾取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 註 上同)

특히 北韓은 韓國內의 重要産業이 모두 美國이 掌握하고 있듯이 보고 있으며 「重要原資材의 80 ~ 100 %를 美帝와 그의 追從國 独占資本에 依存하고 있으며 原資材中에서 原棉은 99.9 % 原毛와 밀, 原糖은 100 %, 機械設備와 部分品은 거의 100 %가 外來 独占資本에 倚매어 있다」고 主張한다. (※ 註, 「勤勞者 1970年 第 10號 P. 52)

5次 党大會에서 金日成은 韓國을 美國의 植民地로 보았고 韓國의 實際的 統治者는 美國이라고 하고 現政府를 美國의 앞잡이인 同時에 「搾取政權」으로 規定하였다. (最近에는 現政府를 美日의 二重 앞잡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韓國에 韓民族의 利益과 美日의 利益으로 對立되는 民族的 矛盾과 現政府와 大衆間에 對立되는 階級的 矛盾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毛沢東에 依하면 이런 矛盾은 敵對的 矛盾이며 前者는 重要矛盾이고 後者는 副次的 矛盾이 되는 것이다. (毛沢東 選集第2卷 P. 58, 矛盾論 1937.8)

그리고 北韓이 現政府를 「팍쇼」로 規定한 것은 現執權層에 軍出身이 많고 強力한 指導體制를 形成하고 있다는데 그 根拠를 든 것 같고 同時에 國民의 自由가 어느때 보다도 抑壓當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過去에 韓國社會를 半封建的인 後進社會로 보고 革命의 性格을 民主革命으로 規定했던 그들이 5次黨大會에선 民族的, 階級的 矛盾이 尖銳化되고 勞動者, 農民의 革命的 進出이 積極化되었다고 하면서 現段階의 革命性格을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한 事實은 그만큼 韓國社會가 資本主義的으로 發展했으나 同時에 無產大衆이 많아졌기 때문에 韓國內部的 矛盾과 弱點도 함께 增大됐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이 弁證法的 矛盾法則에 依拠 兩面分析方法으로 韓國의 強點이나 發展을 絶對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內部엔 반드시 矛盾과 弱點이 있다고 본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勿論 그와 같은 北韓의 韓國觀은 共產主義的 教條主義理論과 저들의 政治的 目的意識에 基礎한 我田引水格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對南戰略의 前提條件이 됨으로 그것을 —

笑에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北韓의 對南戰略과 最近動態

5次 党大会에서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은 美帝를 反對하는 民族解放鬪爭인 同時에 美帝의 앞잡이인 地主, 買弁資本家 反動官僚들과 그들의 搾取統治를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며~이 革命의 基本任務는 南朝鮮에서 美帝를 내쫓고 그 植民地統治를 없애며 軍事 搾取獨裁를 뒤집어 엮고 先進的인 社会制度를 세우므로서 南朝鮮 社会의 民主主義的 變革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過去 中国에서 展開된 毛沢東의 新民主主義革命과 그 論理面에서 類似하다.

그 當時의 中国社会를 半植民地的 半封建的 社会로 規定한 毛沢東의 新民主主義革命路線은 그 自信의 말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에 依해서 指導된 勞動者 農民을 主体로 하고 其他 広範한 社会諸階層이 參加한 反帝 半封建革命 即 넓은 民主와는 勿論이고 社会主義와도 區別된다」는 것이었다. (※ 註, 毛沢東 選集 第4卷 P. 166 參照)

그리고 毛는 이 革命을 国民党 地区에서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統一戰線 工作을 扞한바 그에 依하면 「国民党地区에서의 中共党的 基本方針은 進歩勢力을 늘이고 中間勢力(民族資本家, 進歩的 地主, 雜軍, 国民党内的 中間派, 中央軍内的 中間派, 小부르조아지의 上層 및 各小党派等 7個階層)을 獲得하여 頑固(国民党)勢力을 孤立시키는것」이었다. (※ 註, 毛沢東選集 第3卷 P.234 「抗日勢力을

自由롭게 느끼고 反共頑固派의 攻擊에 抵抗하라」1940.5.4)

即 그當時 中國에는 勞動者階級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絶對多數層인 農民을 主体로 함과 同時에 其他 中間勢力을 統一戰線에 묶어 가지고 國民黨과 그 支持派를 孤立弱화시킨다는 것이었다.

「朝鮮勞動黨 5次大會」에서 한 金日成의 말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即 그는 「南朝鮮革命組織들은 反帝, 反팍쇼 民主化의 旗幟 밑에 모든 愛國的 政黨 社會團體와 各界各層群衆들을 網羅하는 反美救國統一戰線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한바 있다.

그는 「특히 青年學生들을 革命隊伍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이들과 革命의 主力軍인 勞動者, 農民들과의 組織的 紐帶를 緊密히 하기 위하여 努力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毛의 新民主主義革命 戰略이나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및 저들의 統一戰線工作의 理論的 基礎는 毛의 矛盾論(對立物의 統一原則을 發展시킨 것)인바 그것은 敵對矛盾을 最大限 利用하여 革命對象을 弱화시키는 戰略인 것이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毛沢東은 「어떤 過程에서도 主要矛盾 即 指導的 決定的 役割을 하는 矛盾과 副次的 또는 從屬的 地位를 占하는 矛盾이 있는바 複雜한 過程에서 일 수록 全力을 다해서 그 主要矛盾을 찾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 註, 上揭 毛의 矛盾論)

그 理由로서 毛沢東은 中國과 같은 反帝, 反封建民族民主革命에서

「帝國主義의 支配를 打倒하기 前에는 封建地主階級の 支配를 一掃하기 힘들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 註, 毛沢東選集 第3卷 P. 80 「中國革命과 中國共産黨 1939.12」)

5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美帝는 南朝鮮에서 모든 權力을 틀어 쥐고 있는 實際的 統治者이며 南朝鮮革命의 첫째가는 鬪爭對象이다. 美帝의 南朝鮮強占과 殖民地統治는 南朝鮮人民들이 겪고 있는 모든 不幸과 苦痛의 禍根이다. 南朝鮮에서 美帝를 몰아 내지 않고서는 南朝鮮人民들이 오늘날의 不幸한 処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論理는 毛의 그것과 一致된다. 여기서 우리는 過去 毛沢東이 日本軍을 最大의 敵으로 본 것과 같이 金日成이는 美軍을 最強의 敵으로 보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毛가 「民族的 矛盾」을 利用해서 日本軍을 몰아낸 뒤에 國府를 打倒한 것과 같이 金日成이도 그와 같은 戰略 即 美軍을 몰아내고 韓國政府를 打倒하려는 戰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毛가 抗日統一戰線提唱期에 저들의 革命政權은 부르조아지나 프로레타리아階級獨裁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階級이 指導하는 여러革命階級の 連合獨裁라고 했다가 國府를 大陸에서 完全 追放한 뒤에는 中國共産黨이 實質的인 一黨獨裁를 實施한 것처럼 金日成도 至속은 各界各層을 網羅한 人民政權云云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勞動黨의 獨裁를 追求하고 있다는 것은 不問可知的 事實이다.

이와 같은 저들의 人民革命戰略은 小數이며 弱勢인 共産黨이 人

民大衆의 不滿과 反感을 利用해서 反政府運動을 이르게 가지고 強者인 相對方을 孤立弱화시킨 뒤에 暴力으로 奪權하겠다는 것이다.

最近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収, 언커크解体 韓美同盟의 廢棄 및 韓國의 外資誘致反對等等 많은 要求條件과 反對事項을 들고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韓國의 反共法과 韓國保安法の 廢棄, 南北軍縮 및 南北平和協定の 締結도 要求하고 있다.

이밖에도 北韓은 第3 國에의 積極的인 進出과 더불어 우리 友邦들에게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一連의 北韓側 要求와 策動은 韓國의 強點 除去를 위한 兇計임을 누구나 看破할 수 있다.

한편 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을 通해서 平和, 自主, 團結等 統一原則에 合意했을 뿐만 아니라 逆統一的인 相互 誹謗的 心理戰을 中止할 것에 合意해 놓고도 迂回的이며 間接的인 對南誹謗을 繼續 強化하고 있다.

이밖에도 北韓은 저들의 「3 大革命力量」 가운데 하나인 在南地下 黨組織을 爲한 工作員들을 繼續 南派하고 있다.

이것은 分明히 우리 社會內部的 脆弱點을 利用한 人民革命의 基盤을 造成하려는 저들의 兇計이다.

그리고 北韓은 저들의 「3 大革命力量」中 北韓에서의 革命力量 強化에도 血眼이 되고 있는바 其中 몇 가지만 例拳하면 다음과 같다.

南北對話 開始以後 10 月維新以前까지만 해도 北韓은 數 많은

飛行場을 創設했고 奇襲用 飛行機와 艦艇들을 多量導入했을뿐 아니라 그 어느때 보다도 軍裝備의 自体生産에 狂奔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지난 4月の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2次 會議에서 南北의 軍縮. 平和協定. 外部로부터의 武裝導入禁止. 美軍撤収等を 提議하고 特히 美軍만 撤収하면 自進해서 自己軍隊를 20萬以下로 縮少하겠다고 宣傳했다.

우리는 저들이 이미 四大軍事路線에 立脚해서 全人民的 武裝化를 完了했고 特히 120餘萬의 勞農赤衛隊以外에 別途로 70萬의 青年近衛隊라는 学徒軍을 編成하고 그들은 언제나 戰場으로 動員하기 위해 年間 500時間以上の 軍事訓練을 実施하고 있다는 事實은 잘 알고 있다.

또 이미 報道된바 있지만 지난 4月の 最高人民會議에서 北韓은 73年度 軍事費를 從前보다 大幅削減한 것처럼 宣傳했으나 日本專門家들에 依해서 그의 虛偽성이 暴露되었다. (※ 註, 73.5.23. 東亞日報)

北韓의 南北對話에 臨하는 態度 亦是 不誠實할 뿐만 아니라 그의 主張마저도 非一貫的이었다. 저들의 對南提議中 非一貫的인 것 가운데서 그 하나를 實例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71年 4月 12日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5次 會議에서 提示한 許淡의 8個項中 第7項에서 北韓은 「萬一 南朝鮮當局이 聯邦制를 實施하는 것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 南北朝鮮代表들로 經濟委員會를 組織하여 얼마동안 政治的인問題와는 關係없이 經濟的인 交流와 協

調부터라도 始作하여 破壞된 南朝鮮經濟를 復旧하고 民族共同의 繁榮을 促進시키도록 하자. 또한 文化的 分野에서 運繫를 回復하여 조금이라도 民族分裂의 苦痛을 덜어 나가면서 보다 漸次的으로 民族的 接近과 나라의 統一的 發展을 圖謀하자. 南朝鮮當局者들이 이러한 過渡的 措置들마저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그때에는 最少 限度의 人道主義的 措置로서 오래동안 南北으로 갈라져 있는 父母 妻子, 親戚, 親友들間에 서로 安否라도 伝하고 面會라도 하게 하자 ~우리의 8個項目 祖國統一方案은 真正으로 나라의 平和的統一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 들일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인 方案이다」라고 分明히 말했다.

그러나 莫上 南北對話席上에서 韓國側이 저들이 提案한 聯邦制와 政治問題를 뒤로 미루고 人道的, 經濟的, 文化的, 交流問題와 協調問題부터 討議하자고 主張하자 北韓側은 이를 反對하고 政治問題부터 다루자고 固執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와 같은 言動은 "Hit and Run" 또는 "Give and Run" 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一見 不奈理하고 非連續的 印像을 준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政策的으로 一貫된 저들의 政治的 意圖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必境 「巨人을 기진脈尽하게 하고 피로케 만드는」 毛沢東式 「게리라」戰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毛沢東은 그의 著書 「遊擊戰」 (1937年刊)에서 게리라兵法의 基本原則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즉

- 東쪽을 攻擊하는 것처럼 하고 西쪽으로 攻擊하라 (声東擊西)
- 堅固한 点を 避하고 脆弱한 곳을 攻擊하라.
- 敵이 前進하면 後退하고 敵이 停止하면 攪亂하고 敵이 後退하면 追擊하라.

(※ 註, 1971年2月 國際科学文化研究所 訳刊 " 解放의 戰略 " (毛沢東 게바라) P.41 参照)

그리고 北韓의 一面會談, 一面地下工作戰術을 毛의 " 辺談辺打 " " 談談打打 " " 打打談談 " 式 協商期의 戰術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이와 같은 것이 事實이라면 至今 北韓은 "Hit and Run" 또는 "Give and Run" 式의 政治的 「게리라」戰으로 우리의 關心을 南北對話에 이끌면서 他邊에선 分明히 우리의 脆弱點을 파고 들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最近動態를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이 評價할 수 있을것 같다.

即 北韓은 現段階를 非暴力的 鬭爭期로 設定하고 期間中 南北對話를 合法 및 半合法 鬭爭形態로 하고 對南地下工作과 黑色心理戰을 非合法鬭爭形態로 하며 兩者의 相互結合으로 저들의 3大革命力量을 培養하면서 決定的, 時期의 造成 및 到來를 劃策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国土統一院刊 「 国共合作을 통한 中共戰術 」 및 스탈린全集 第5卷 P.89 「 러시아共產主義者의 政治的 戰略과 戰術에 關하여 」 参照)

마. 小結論 (韓國의 強弱點에 對한 北韓의 判斷基準)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金日成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狀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主義와 毛沢東의 矛盾論을 敎條的으로 適用한 敎條主義思想이다.

昨今の 北韓의 諸波動態로 보아 그것은 本質的으로 修正主義를 反對하기 위한 主体思想이며 人民民主主義革命을 推進하기 위한 主体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在 그가 指導하고 있는 北韓의 平和共存外交와 對南協商에선 레닌의 欺瞞術策과 毛沢東의 矛盾操作法이 指針이 되고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對話開始以後의 武力增強 및 對南工作의 多樣化는 틀림없이 人民革命基盤造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다. 그럴진대 여기서 우리는 北韓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 判斷基準과 留意할 事項은 다음과 같이 導出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金日成은 敎條主義者임으로 맑스·레닌主義的 唯物弁証法과 毛沢東의 矛盾論을 韓國의 強弱點 判斷의 理論的 基礎로 삼을 것이다. (革命意識)

둘째, 그가 設定한 現段階의 對南工作은 人民民主主義革命路綫을, 指針으로 하고 있을 것이 分明함으로 北韓은 人民民主主義革命遂行과 同戰術遂行에 障礙가 되는 모든 要素들은 韓國의 強點으로 불

것이다. (赤化沮害要素)

셋째, 따라서 北韓이 보는 韓國의 弱点은 모든 分野에서 저들의 浸透, 包撰 및 瓦解可能要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赤化工
作可能要素)

넷째, 但 저들이 信奉하는 唯物弁証法的 論理와 矛盾論은 強한데
도 弱点이 있고 弱한데도 強点이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저들의
思考를 恆常 兩面的으로 考察해야할 것이다. (兩面的 觀察)

다섯째, 北韓이 보는 韓國의 矛盾과 弱点에는 心理戰的 目的意識
이 內含되고 있음으로 그 真意를 把握하기 위하여 心理戰的 分析
方法도 兼해야 될 것이다. (心理戰的 目的意識)

3. 北韓이 보는 韓國의 基本強弱点

1972年 年頭記者會見에서 朴正熙大統領은 「政治, 經濟, 社会, 国防, 文化 모든 分野에서 檢討해 볼때 지난 10年동안 1次.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通해서 우리의 国力을 놀랄만큼 成長했으며 특히 北韓에 比해 볼때에 우리는 越等하게 앞서고 있으나 다만 軍事的인 側面에서 볼 때에 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 註 「國土統一」 國土統一院 1972.1月号 參照)

이것은 北韓에 比較해 본 우리의 部門別 強弱点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朴大統領은 軍事的 部門에서도 「우리가 国力을 잘 한때에 夢쳐서 잘 組織化하면 北韓보다도 훨씬 더 強한 힘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狀態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했다.

또 1973.1.12 朴大統領은 73年度 年頭記者會見에서 「莫上 南北對話를 始作해 놓고 보니 國論이 紛紛해서 國論이 統一이 안되고 南과 北의 體制를 比較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自由民主主義體制에는 共產主義者들과 對話를 始作하고 앞으로 交流를 하는데 여러가지 脆弱点이 많다는 것을 發見했다」고 말하였다.

그 事例로서 朴大統領이 指摘한 우리의 脆弱点を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精神面에서 主体性이 稀薄하고

둘째, 國民意識面에서 利己主義가 強하여 國家와 個人의 一體感이 欠如되어 있으며,

셋째, 行動面에서 우리의 모든 行動은 生産과 直結시키지 못했으며

넷째, 政治面에서 国会의 非能率的인 運營相을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으며,

다섯째, 經濟面에서 技術, 雇傭, 分配等に 不条理와 非合理的인 要因이 있으며,

여섯째, 社会, 文化面에서 아직도 우리 社会에는 奢侈와 浪費의 不条理現象 特히 外来文化崇尚思想이 있으며,

일곱째, 國際面에서 自主性이 不足하다는 事實들을 들었다.

朴大統領의 말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脆弱點은 南北對決에서만 아니라 우리 民族이 잘 살려면 반드시 是正해 나가야 될 點이며 이것은 10月維新을 통해서 至今 果敢히 手術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北韓의 對南浸透 및 宣傳工作에 좋은 對象이 되었으나 이것이 漸次 是正되어 가자 北韓이 우리의 10月維新을 逆統一的인 處事라고 非難하는 것은 10月維新이 저들에게는 一大 打擊이 되고 있다는 것을 立証한 셈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人民革命戰略遂行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韓國의 基本的 強弱點에 있어서 強點으로는 人口數, 國際的地位面에서의 優勢, 反面에 弱點으로는 地下資源의 北韓偏在, 友邦 美國과의 遠隔, 中蘇와의 隣接等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韓國의 基本的 強弱點에 對한 北韓의 認識과 戰略은 어떠한가?

저들의 言辭와 文獻을 通해서 部門別로 그 概要를 알아 보기로 한다.

× × ×

※ 參 照

다음에 提示하는 北韓이 보는 韓國의 部門別 強弱點은 1972年 11月의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 會議에서 行한 金日成의 社會主義 憲法에 關한 報告演說을 主로 引用한 것이다. 그는 同演說에서 南北對話에의 直接的인 影響을 考慮하여 從前과는 달리 韓國을 直線的으로 非難하지 않고 抽象的으로 社會主義 社會制度和 資本主義社會制度를 比較하는 形式을 取했으나 實際上으로는 南北韓의 社會制度를 迂回的으로 比較한 것으로 보이며 特히 이 資料는 南北對話 以後의 것이므로 그 利用價值가 클것 같다.

× × ×

가. 政治部門

(1) 國民의 基本權

前述한 바와 같이 朴大統領은 우리의 對北優位部門의 하나로 政治部門을 들었는데 이것은 金日成 一黨의 專制的 統治下의 北韓住民이 人間의 基本權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個人的 自由權과 政治的主權을 完全히 剝奪 또는 유린당하고 있는데 比해서 우리 國民은 民主主義 原則下에서 그 基本權을 法的으로나 政治的으로 保障받고 있다는 事實을 評價의 基準으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와는 價值體系가 다른 金日成은 北韓의 評價基準으로서 사람들의 社會的 地位는 國家主權과 生産手段을 가지고 있는가 못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決定된다」고 主張하면서 「國家主權과 生産手段을 가진 사람이라야 社會의 主人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 註,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 會議에서)

그러면서 그는 北韓에서는 勤勞大衆이 나라의 主人이 되고 있지만 「搾取社會에서 勤勞大衆은 國家主權과 生産手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社會의 主人이 되지 못하고 搾取와 壓迫의 對象으로 되고 있으며 온갖 人格的인 冒辱과 蔑視를 받고 있으며 돈이 모든 것을 支配하는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사람의 人格도 돈에 依하여 評價되며 돈 없는 사람은 物件처럼 取扱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北韓의 社會主義 制度는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들에게 政治的 自由와 權利를 實質的으로 保障해 주는 真正한 民主主義制이나~ 國家權力이 한줌도 못되는 搾取階級の 손에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勤勞者들은 國家主權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가 없는 것은 勿論 自己의 政治的 意思를 發表할 수 있는 初步的인 自由와 權利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오직 搾取階級에게 順從할 義務만이 치러지고 있으며 資本家들이 떠드는 이른바 自由와 權利는 全的으로 統治者들과 搾取階級이 人民大衆을 抑壓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民主主義는 부르조아 獨裁를 가리우기 위한 偽裝物에 지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金日成의 이와 같은 主張은 南北韓住民의 實際的 主權行使를 比

較해 볼때 賊反荷杖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企業主나 特殊層에
는 그가 指摘한것 같은 非民主的 行勢를 恣行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金日成의 이와 같은 兇言은 貧民層과 無知
한 大衆에 對한 宣傳.煽動的 効果는 決코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중도 못되는 搾取階級」이라던가 「人民大衆」이란 저들의
常套語이긴 하지만 그것은 宣傳.煽動的 効果만 아니라 韓國의 人
口數的 優勢를 否定하고 階級的 分裂可能性을 信奉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北韓은 「人民大衆」의 힘을 한데 묶어 「한중도 못되
는 搾取階級」을 攻擊하면 革命은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은 韓國의 人口數的 優勢를 無視하고 統一戰線 概
念을 利用하는바 저들은 南韓住民을 攻擊對象인 反革命勢力(政府官
僚, 地主, 買弁資本家等)과 革命勢力 即 革命的 動力(勞動者, 農民
從前에 中間勢力으로 規定하던 青年學生 知識人外 3大勢力 包含)
으로 分類하고 後者로 하여금 이른바 人民聯合戰線 또는 統一戰線
을 形成케 하여 前者를 攻擊시키려는 것이다.

(※ 註, 北韓은 統一戰線 構成對象에 與野人士中 不滿層도 包含시
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統一戰線을 指導하기 위한 맑스.레닌主義的 政黨인
「統一革命黨」(地下黨)의 存在를 浮刻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北
韓力量의 宣傳의 誇示 南韓住民의 數的優位의 減退效果 政府와 大衆
指導層에 對한 威脅 및 中立化 第3者의 現惑化等 多目的的 效果
를 노린 것이다.

여기 對해 우리는 人口數의 優勢를 質的으로 強化하여야 할 것
인바 그러기 爲해선 大衆에 對한 啓蒙은 勿論이 거니와 金權力 信
奉者들의 反民主的 行爲를 善導的으로 抑制하여 對內的으로는 國民
總和를 이룩하고 對外的으로는 韓國의 民主主義를 浮刻시켜야 할 것
이다.

(2) 指導體制

우리는 近 30年間 全體主義의 北韓과 對決해 오면서 冷戰의
價值體系와 民主主義란 大義때문에 權力의 多元的 社會基盤과 3權
分立制度에 依매어 비록 大統領中心制라곤 하였지만 南北對決에 必
要한 國力의 組織化 및 極大化를 期할 수 없었다.

이러한 階단은 10月維新으로 排除되어 國家元首로서의 大統領制
度權限을 強化함 同時에 社會的 權力構造는 機能主義化와 協同化를
指向고 三府의 權力은 相互牽制보다는 分業制로 改編되었다.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軍營化된 北韓의 指導體制보다는 強力
하지 못하나 自由民主社會의 指導體制로선 最強級의 對共體制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最大의 障礙物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10月維新體制를 逆統一의이며 非民
主的 獨裁統治體制라고 謀略 非難하고 있는데 그 理論的 背景을
보면 일찍이 맑스는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된 나라(美·英·和)
에선 平和的 革命이 可能하나 獨逸(그當時)처럼 덜 發展된 나라
에선 "強力"이 「지렛대」가 된다는 事實을 認識해야 된다」고
말했다.

※ 註, 맑스.엔겔스選集 第11卷下 P.400 「암데르담의 公開集會에
서의 演說」 參照 1972.9.15

그리고 엔겔스도 「맑스의 말을 빈다면 強力은 新社會를 妊胎한
舊社會의 助産婦이며~硬直되고 麻痺된 政治的諸形態를 粉碎하는 道
具」라고 했다.

※ 註, 맑스.엔겔스選集 第14卷下 P.332 「反듀링그論」 1878.
參照

이와 같은 맑스.엔겔스의 見解는 저들이 1972年 「파리.코뮌」
에서 失敗한 經驗을 土臺로한 것인데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힘
의 哲學」을, 革命의 手段으로 信奉하게된 敎條的 契機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後 「엔겔스」는 「모든 權力이 國民議機關
에 總集中되어 있고 그것이 國民多數의 支持를 얻어 即刻 憲
法에 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當時(美.仏等)들과
執權層이 腐敗하고 無能한 나라(그當時 英國)에서는 낡은 社會가
平和的으로 새 社會로 成長移行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獨逸(그當時)처럼 政府가 거의 全能的이며 國民代議機關이 實權을
잡지 못한 나라에선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 註, 「맑스.엔겔스選集 第17卷下 P.385 「1891年の 社會民主
黨<에르허르트>綱領草案 批判」 1901年

이와 같은 理論的 歷史的 背景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그當時
強力한 政權을 維持했던 獨逸의 경우에 對한 「엔겔스」의 警告」

로 보아)北韓이 韓國의 強力한 指導體制를 가진 現政權을 싫어할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그리고 最近 北韓이 우리의 10月維新을 極口 非難하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라고 할 것이다.

4月中 北韓의 黑色放送은 對南誹謗中 55% 以上을 現執權者와 政府 및 政策非難에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北韓은 무엇때문에 南北韓對話를 繼續하고 있는가? 여기 對해선 그들은 또 제나름대로의 計策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팻쇼」政權에도 弱點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탈린」은 「팻쇼」는 「부르조아지」의 弱化徵兆 即 議會制度와 부르조아民主主義라고 하는 낡은 方法으로선 이제 더 支配할 수 없게 되었다는 徵兆」라고 했던 것이다.

※ 註, 스탈린全集 第13卷 P.319

그리고 「후루시초프」亦是 그것은 「부르조아지의 強點이 아니고 弱點의 表現」이라고 하면서 「팻쇼에 對抗하여 보다 廣範한 人民層을 참된 民族的인 民主勢力은 모두 結束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한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선 색트主義를 徹底히 克服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했던 것이다.

※ 註, 후루시초프: 「1959년부터 1965년까지의 蘇聯邦人民經濟發展目標에 關하여」日共党中央委 宣傳教育部編 「蘇聯共産黨 第21次 大會」第1分冊 P.116

그리고 毛沢東도 過去에 國府를 反民主的인頑固派 및 팻쇼政權으로 規定하고 國內外的으로 國府의 孤立을 策動한바 있었다.

※ 註 「国共合作을 통한 中共戰術」 国土統一院 1972.8

특히 毛沢東이 그 當時 美國의 自由派, 反戰派人士들에게 그와같은 謀略宣傳을 함으로서 美國府離間에 相當한 效果를 얻었다는 事實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的 敎條와 前例에 따라 北韓은 現韓國政府를 「팻쇼」로 規定하고 우리體制内の 強點을 弱化하기 위한 對內外的 工作을 試圖하고 있다.

이들때면 北韓은 西方側 記者들을 招請하여 自己宣傳과 함께 韓國의 強力體制를 非民主的 "팻쇼"手法이라고 謀略하는 한편 美國의 對韓軍經援政策을 極口非難하면서 韓美離間을 劃策하는 國際輿論을 喚起시키려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 北韓은 우리政府의 果敢하고도 積極的인 對內改革에 對한 一般大衆의 威壓感을 利用하여 政府對 國民間的 離間과 「統一戰線」의 形成等을 劃策하고 있는바 그의 對應策으로서 우리는 韓國의 民族史觀의 早速한 定立과 國民外交의 強化로 亦是 韓國의 民主主義를 對內外的으로 浮刻시켜야 할 것이다.

나. 外交部門

韓國統一問題는 冷戰時代의 國際政治의 產物이기 때문에 始初부터 國際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地理學的으로 北韓은 그의 同盟國과 隣接해 있고 自體內部에 豊富한 自然資源과 工業施設을 가지고 있는데 對해서 韓國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韓國의 外交는 美國을 主軸으로한 歐美列強들과 UN을

對象으로 하였고 그 目的은 主로 安保, 經濟, 統一에 對한 그들의 支援을 얻는 것이었다.

특히 世界 最強國인 美國과의 傳統的 紐帶強化는 우리의 對內外的 國力培養에 決定的 要因이 되었다. 그리고 美國의 軍事的 保護와 經濟, 外交의 支援下에 世界第2位의 經濟強國으로 成長된 日本 亦是 近來에 와선 우리의 큰 支援國이 되었다. 反面에 北韓은 中蘇의 思想的, 軍事的 政治的 支援은 받았으나 始初부터 封鎖的인 自給自足的 經濟政策을 써왔고 특히 6.25南侵이란 犯罪的 過誤로 因해 國際舞臺에서의 孤立을 免치 못했다.

따라서 國際的 地位面에서 韓國은 傳統的으로 對北優勢를 堅持하게 되었다.

이것은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遂行에 決定的 沮害要因이 되었다. 특히 美國의 韓國駐屯과 美國의 軍經援은 韓國의 最強點이 되고 있다.

그리고 UN의 對韓支援 亦是 名分上으로 韓國의 強點이 되고 있다. 때문에 北韓은 對韓同等地位 獲得, 駐韓美軍의 撤収 및 언커크의 解体問題를 그들 外交의 至上課題로 삼고 있다.

毛沢東의 矛盾論에 依하면 이것은 敵對矛盾中에서도 重要矛盾이 되고 있었다.

北韓은 이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 對內外的으로 反美運動을 強力히 展開했으나 그것은 冷戰體制下的 國際舞臺에서는 勿論이고 韓國社會에서도 오히려 韓國國民의 對美信賴感을 強化하고 저들에 對한

警覺心만 提高시켰다.

매마침 美中接近으로 國際的 平和무드가 到來하자 北韓은 이에 便乘하여 迂回的인 美軍撤収運動을 展開하기 始作했다. 北韓은 傳統的으로 韓國의 對外的 弱한 고리인 對阿中東親善工作만 아니라 第2 中間地帶라고 할 수 있는 歐洲諸國에 接近함은 勿論이고 심지어는 美國等地的 言論, 文化界에 과고 들기 始作했다.

그와 같은 73年度 工作의 內容을 지난 5月31日 現在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은 總 23 個 代表團(副部長級 二次官僚級以上)인 74 個 國을 訪問하는 한편 17 個 國 18 個 代表團을 北韓에 招請하였다.

둘째, 北韓의 外交戰術上的 特徵을 보면 地域別 對韓美感情과 特殊心理를 最大한 利用하였다. 即 中蘇를 비롯한 共產國에선 主로 同志的 UN 對策을 中東에선 反美이스라엘 感情을 西歐에선 東西獨型的 韓半島 現狀固定化 및 緊張緩和를 中南美에선 傳統的 反美感情을 亞細亞에선 人民外交를 통한 反帝反植民地 感情을 그리고 아프리카에선 人種差別로 因한 反西方國感情을 各各 利用하고 있다.

셋째, 이 結果로 期間中 修交關係創設에서 韓國은 1 個 國增인데 比해서 北韓은 8 個 國增이고 總修交國數에선 韓國의 86 個 國에 比해서 北韓은 54 個 國으로 또 外交官常駐國數는 韓國의 43 個 國에 比해서 北韓은 38 個 國으로서 韓國을 肉迫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特徵的인 것은 北韓이 I.P.U와 W.H.O에 各各 絶對多數票支持로 加入했다는 事實이다.

그렇다해도 各種國際機構加入面에서 아직 韓國은 優位를 堅持하고 있지만 現趨勢로 보아 今後의 展望은 樂觀을 不許하고 있다.

(※ 註, 南北韓의 各種國際機構加入現況을 對比하면 UN 直屬機構에 7:0, UN 專門機構에 12:1, 政府間 國際機構에 28:2, 民間國際機構에 229:116 으로 韓國이 아직 優勢하다. - 1973.5 現在)

그런데 흔히 이와 같은 北韓의 對外進出은 우리의 外交的 失敗라기 보다는 時代的 潮流에 基因된 不可避한 現象이라고들 한다. 勿論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對外活動을 意識的으로 默認한다면 모르지만 多少라도 抑制할 것이 必要하다면 다음의 몇가지 事項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即 北韓의 現對外政策目標은 對韓國同等地位確保 유엔參席, 언커크 解体, 美軍撤収等 韓國의 強點을 減退 또는 除去하려는 것이 事實이다. 그리고 次期目標로 韓國의 第2 台灣化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저들의 人民革命戰略遂行上 基本的 課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의 對外工作을 默過해서 될 것인가? 多少라도 저들의 對外工作戰術을 알고 그에 對備해야 될 것이 아닌가? 現在 北韓의 對外戰術은 毛式 都市包圍作戰과 게리라의 浸透作戰을 模倣하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면 이時点에서 저들이 보는 우리의 外交的 弱點은 무엇일까?

첫째 對北政策目標가 不透明하다. 伸縮性있는 外交는 좋다. 그

러나 古代 "그리스"의 格言대로 "喇叭소리가 不確實할텐데 그누
가 올바른 戰鬪準備를 할 것인가?

둘째, 우리는 北韓의 開放化를 통한 高質을 促進하기 위해 저들
을 國際舞台에 誘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北韓의 對外進出
을 傍觀만 할 것이 아니라 能動的이며 意識的인 措置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못하는 것이 自他가 보는 韓國의 外交的 矛盾 또는 弱
點이 아닐까?

우리는 北韓보다 한 걸음 더 앞서 北韓의 "第2 台灣化" 妄想을
源泉的으로 粉碎하고 저들을 우리의 "베이스"로 誘導해야 할 것
이다.

다. 經濟部門

自然資源과 重工業施設의 北韓偏在에도 不拘하고 (1971年度
GNP에서 韓國은 北韓에 比하여 2.2 倍를 占하였고 1人當 GNP
에서도 韓國이 若干 앞서게 되었다. 그리고 住民生活水準에서도
韓國이 훨씬 높다.

그의 基本的 要因은 첫째, 韓國의 市場 經濟體制가 北韓의 社会
主義經濟體制보다 優秀하다는 것.

둘째, 政策面에서 韓國은 福祉社会를 指向하여 國民의 自發的인
參與를 刺戟한데 反해서 北韓은 軍需工業의 土臺를 造成하기 위한
重工業優先主義政策으로 住民의 生産意慾을 誘發할 수 없다는 것.

셋째, 管理面에서 韓國은 生活的 方法을 導入하고 있으나 北韓은

旧態依然한 官僚主義方法을 踏襲하고 있다는 것.

넷째, 韓國은 北韓보다 勞動人口가 豊富하다는 것.

다섯째, 韓國은 美日友邦을 비롯한 歐美各國과 世界經濟機構와의 國際協力強化로 海外貯蓄(外資誘致) 現代施設 및 先進技術導入이 容易하나 北韓은 오히려 被搾取國化되었다는 것.

여섯째, 支出構造에서 韓國은 住民生活保障優先主義나 北韓은 軍事費를 비롯한 公共支出優先主義를 取했다는 것. 其他 여러가지 要因을 比較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가운데서 가장 關鍵的 要因은 南北의 相互對立(특히 北韓의 武力南侵政策)으로 軍事費 支出에서 韓國이 1人當 9\$ 이나 北韓은 約 50\$ 이 된다는 事實(1971年度)과 韓國의 國際協力關係의 絶對的 優位等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反面에 韓國의 脆弱點으로 첫째 成長為主政策때문에 分配面에서 國民所得이 隔差가 높다는 것. 둘째 原資材, 資本 및 技術의 海外依存度가 높다는 것. 셋째, 軍需工業의 未築狀態에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脆弱點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經濟가 繼續 高度成長을 維持하고 今後의 展望은 더욱 밝다는 事實에 對해서 北韓은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即 1964年 2月 27日의 勞動黨 中委에서 金日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強力한 經濟力은 祖國統一의 重要한 밑천이 된다.

그것은 南朝鮮人民들에게 더욱 더 커다란 革命的 影響을 줄 것이다

오늘 南朝鮮에서는 勤勞者들이 혈벗고 굶주리고 있다. 病이 나도 藥을 쓸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學校에 갈 수 없다. 南朝鮮 사람들이 北朝鮮에 와 보면 누구나 다 北朝鮮의 政治가 옳다는 것을 認定하게 될 것이며 南朝鮮植民地統治를 反對하여 싸울 決心을 가지게 될 것이다. 至今 美帝와 그 앞잡이들이 南北 사이의 交流를 反對하는 重要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요즘 ○○○○○은 <先建設 後統一>의 國號를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꿈은 絶對로 實現될 수 없다」고 斷定하고 韓國經濟發展의 障礙는 美國의 植民地 政策때문이라고 하면서 北韓의 優位性을 豪言壯談하는 한편 南韓의 劣勢를 美國의 責任으로 轉嫁시킴과 同時에 韓美離間을 劃策하였다.

그리고 71.4에 있는 許淡의 8個項 提議에서도 北韓은 「南北朝鮮代表로 經濟委員會를 組織하여 얼마동안 政治的 問題와는 關係 없이 經濟的 交流와 協調부터라도 始作하여 破壞된 南朝鮮經濟를 復旧하고 民族共同의 繁榮을 促進기로 하자」고 提議해 왔다.

또 지난 年初에 北韓은 우리 農村建設을 支援하겠다고 提議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過渡期的 都農間的 隔差를 우리의 弱點으로 보고 한 宣傳的 技巧였다.

그러나 最近 北韓은 南北對話를 契機로 우리 經濟의 發展相을 否定할 수 없었다. 金日成은 最近 外人記者들에게 韓國의 輕工業 優位를 是認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側의 南北經濟交流提議 및 南北社會의 完全開放化提議에 꼬리를 빼고 있다. 이것은 必鏡 韓

國經濟의 優位性을 意識한 逃避行爲이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아직도 韓國經濟에 對한 否定的 態度와 矛盾 操作에의 執念을 拋棄하지 않고 있다.

金日成은 韓國經濟의 優位를 制度面에서 批判하고 있다. 그는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小數搾取階級들이 날로 富裕해지는 反面에 絶對多數의 勤勞人民들은 더욱 더 零落되어 悲慘한 生活을 하고 있다. 資本主義 社會는 搾取階級과 被搾取階級 사이의 貧富의 差異가 날로 甚해지는 富益富 貧益貧의 社會이며 勤勞大衆을 기아와 貧窮에로 몰아넣는 暗胆한 生地獄」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 註, 1972.12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會議 演說에서)

이와 같은 金日成의 發言은 直接的으로 韓國을 對象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間接的으로 韓國의 脆弱點을 非難함과 同時에 自己들의 制度的 優位性을 對內外에 宣傳하여 南韓住民의 反美反政府思想을 鼓吹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우리 企業人들을 買并資本家로 規定함과 同時에 民族資本家, 小資本家를 反美日, 反政府革命勢力化하려고 劃策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의 強弱點을 함께 包含하고 있는 外資導入 및 海外技術協調問題를 否定的 方向으로 몰고 가기 위한 經濟人內部的 離間反目을 操作하려는 術策인 것이다.

또 저들이 우리 社會의 所得隔差, 都農隔差等 過渡期的 不均衡狀態를 攻擊하는것 亦是 勞動者 農民에 反政府思想을 注入시키기 위한 術策이다.

특히 지난번 第5期 第1次 最高人民會議에서 南北의 武器搬入禁止를 提議한 事實은 軍需工業部門에서의 우리 弱點을 固定化시키기 위한 底能兒의 잔꾀라고 하겠다.

이처럼 北韓은 「否定的 否定原則」에 依해서 우리의 弱點은 固定化 또는 極大化함과 同時에 우리의 強點内部의 어레선가 矛盾과 弱點을 찾아 이를 弱化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北韓의 術策을 把握하고 国内外의 脆弱層에 對한 善導에 注力해야될 것 같다. 그와 同時에 우리의 強點을 繼續 發展시킨다면 우리는 不遠 經濟的 強國으로서 北韓을 圧倒할 수 있을 것이다.

平和共存時代에선 經濟力이 그 어떤 軍事力이나 思想力보다도 最強의 武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 軍事部門

軍事部門에서의 우리의 強點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駐韓美軍과의 合同軍을 形成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우리는 越南戰에서 實戰經驗을 쌓은 軍人出身 靑壯年들과 強力한 反共精神으로 武裝된 愛國靑年들로 組織된 200餘萬의 鄉土 豫備軍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事實은 北韓도 認定하는 바로서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며 덜 發展된 나라이다. 내놓고 보드라도 우리는 軍事技術裝備面에서 發展된 나라들과 競爭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必要도 없다. 戰爭의 運命은 決코 그 어떤

現代武器와 軍事技術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다. 帝國主義者들이 비록 軍事技術優勢를 가지고 있지만 그 代身 우리 人民軍隊는 그들에 比해서 政治思想的 優越性を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間接的으로 우리의 軍事的 強弱점을 表現할 것이다. 如何間 北韓은 우리의 軍事的 強弱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와 同時에 金日成은 저들의 強점을 政治的思想面에서 찾으려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強점을 制禦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共產主義的 敎理에 따라 우리의 強点内の 矛盾과 弱점을 發見 이를 利用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 國軍内部에도 民族的 矛盾과 階級的 矛盾이 있다고 본다.

金日成은 「오늘날 南朝鮮에서는 603에 達하는 靑壯年들이 國軍에 服務하고 있다. 國軍兵士들과 中下層 將校들의 絶對多數는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出身이다. 그러나 國軍은 美國의 植民地統治의 道具로서 人民과 民族을 反對하여 銃을 겨늘 것을 強要당하고 있으며 植民地雇傭軍隊로서 侵略戰爭에 끌려다니고 있다. ~國軍兵士들과 中下層 將校들은 美帝와 그 走狗들에게 속지 말고 총부리를 美帝와 그 走狗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革命은 大衆을 覺醒시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南朝鮮人民들을 覺醒시키는 데서 가장 重要한 것은 大衆속에서 美國에 對한 幻想과 事大主義思想을 克服하며 反共思想을 뿌리

뽑는 것이다」라고 했다. (※ 註, 1966.10.5 朝鮮勞動黨 代表者會議 報告에서)

이처럼 金日成은 國軍内部的 強点에서 民族的 矛盾과 階級的 矛盾을 造作하려 하며 그 手段으로서 反共思想을 除去할 것을 強調하였다.

또 그는 南韓住民들 가운데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美國을 崇拜하고 美國에 依存하여 살려는 思想의 影響은 民族的 解放과 獨立을 위한 鬭爭에 커다란 障礙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反美思想鼓吹도 力說했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말에서 우리의 親美反共思想은 곧 우리의 強点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자들의 強点 亦是 政治思想的 武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말에 二律背反的 要素가 있는 것은 事實이나 南北의 對立關係가 思想的 性格에서 出發되고 또 그것으로 貫徹된다는 事實을 立証한 것이라고 하겠다.

南北對話는 雙方이 思想的 . 制度的 . 理念的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 團結을 이룩하자고 했고 또 南北調節委員長會議는 相互 誹謗的인 心理戰放送을 中止하기로 合意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오히려 思想心理戰을 더욱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들은 鬭爭形態만 바꾸었을 뿐 人民革命戰略을 繼續 推進하고 있다는 事實을 짐작할 수 있다. 特히 美軍撤収 . 南北軍縮 . 平和協定締結 . 外來裝備搬入中止等을 提議하고 있는 事實 亦是 자들의 人民革命戰略遂行에

障碍가 되고 있는 우리의 強点を 矛盾戰法・協商戰術에 依해서 除去하려는 計略인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우리 政府의 最終堡壘는 国軍임으로 우리 政府를 打倒하기 위해선 国軍의 瓦解事業에 力点を 두어야 한다고 한바 이것은 아직도 그의 腦裡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69. 1. 人民軍党 第4期 4次 全員會議 및 1964. 2. 27 朝鮮勞動党 第4期 8次 中央委員會에서 한 그의 演說文 參照)

여기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韓美親善과 軍에 對한 政訓 教育의 強化를 要望하는 바이다.

라. 社会部門

社会構成員의 自由와 平等이 現代人類의 理念이라면 우리社会는 社会構成員의 出身成分差別없이 居住地 移動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信仰의 自由, 言論의 自由 結婚의 自由, 餘暇利用의 自由 등이 制度的으로 保障돼 있기 때문에 個人的 創意創發性, 自由로운 競争, 民主的 參與意識 등이 發達되어 國家 社会의 發展에 原動的인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는 다른 하나의 理念的 要素인 社会構成員의 平等具顯에 支障을 招來하는 要因도 없지 않다. 前者를 우리의 強点이라고 한다면 後者は 우리의 弱点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社会的 二律背反性은 關係途上國家에서 일 수록 階層間 都農間 世代間的 隔差와 社会的 不条理現象을 發生케 하여 国力培養보다는 国力瓦解可能性을 많이 內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過渡期的 社会의 疾病이라고 하는 共產主義를 蔓
莖케 하는 素地이기도 하다.

最近 金日成은 이러한 것을 資本主義社会(間接적으로 韓國社会示
唆)의 根本的 脆弱点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極端的인 利己主義에 基礎하고 있으며 弱肉強食의 法則이 作用
하고 있는 資本主義社会에서는 詐欺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反目疾視하는 功名과 出世 個個의 安逸과 享樂을 위하여 남
을 犠牲시키는 것이 普偏的 現象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社
会主義社会에서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하여 사람들이 서로 尊重하고 信賴하여
協調하는 真正한 同志의 關係가 社会를 支配하고 있다」(※ 註,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 會議에서 1972.12)

이것은 그의 敎條主義的 形式論理엔 틀림 없다. 그러나 여기엔
事實도 많이 包含되어 있다.

여기서 그들은 흠어진 우리社会의 量的 優位를 더욱 瓦解시키면
서 저들의 集團主義的 組織力으로 征服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졌
을지 모른다.

또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弱点이자 北韓의 強点에도 言
及했다. 즉 北韓은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들의 物質文化
的生活을 全的으로 保障하고 있고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일자
리를 保障받으며 모든 病弱者와 老弱者의 生活을 保障해 주며 모
든 人民이 衣食住를 保障받으며 無償治療의 惠沢을 받으며 人民学
校 學生들로 부터 大学生에 이르기까지 無料教育을 받고 있으며, 特

히 成人이나 勤勞者들까지도 배움의 길을 얻게 되었으며 主權과 生産手段만 아니라 文化藝術도 人民의 것으로 만들었으며~云云」하였다.

이것은 비록 貧窮의 平等化로 表現될 北韓住民의 生活實態와는 많은 乖離를 갖고 있지만 그가 그리는 資本主義社會의 住民에 對한 宣傳效果를 노린 것이다.

이를테면 金日成은 우리社會의 矛盾弱點을 자들의 虛偽宣傳으로 極大化하겠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宣傳方法도 惡質的이지만 그 一次的 責任은 우리社會가 에게 그와 같은 宣傳動機를 賦與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金日成이가 指摘한 것과 비슷한 社會的 矛盾과 弱點을 10月維新을 통해서 是正補完하고 있지만 이것은 過渡期的 社會의 通例的인 것임으로 그의 除去에는 많은 時間이 要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當然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過渡期的 不條理는 經濟成長과 社會的 近代化가 이룩되면 많이 是正될 것이기 때문에 北韓은 그以前 段階에서 勝負를 가리려는 計算이다.

우리社會의 不條理는 根本的으로 放任的 自由가 派生한 利己主義에서 出發된다는 事實을 銘心하고 우리의 貴重한 自由를 保障받기 위해선 自由의 主產物인 生産性을 堅持하고 그의 派生物인 利己主義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平等追求의 길도 된다.

金日成은 理論上으로는 우리 社會의 利己主義를 非難하겠지만 實

地 저들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해서 우리社會의 利己主義를 積極利用하려 하고 있다.

第 5次 党大會에서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 自身の 革命이며 各界各層은 그 自身の 利益」을 위해서 反美反政府鬪爭을 버려야 한다고 했던 事實은 바로 이것을 立証한 것이라고 하겠다. 自由民主市民은 真正 自身の 利益을 增大保障받기 위해서 小義的 利己主義를 清算하고 互惠·協同精神에 依拠 全体와 個體의 一體 即 個人과 國家가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大義를 守護해야 할 것이다.

바. 小 結 論

概略的으로 나마 北韓이 보는 韓國의 基本的 強弱點을 分析해 보았다.

우리와 저들 사이에 相反된 價值體系를 堅持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저들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은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判斷基準으로 삼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할 수 있었다.

저들의 判斷에는 時代錯誤的이며 幼稚한 것과 非一貫的인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己目的意識과 結付되어 있다. 저들의 革命意識을 正確히 把握하고 그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은 우리社會의 無知와 利己主義는 勿論이요 甚之於是 合理的 思考에도 自体矛盾과 弱點이 있다고 믿고 그의 發見과 利用 및 그의 造作에 注力한다.

저들의 立場에서 思考하고 저들의 方法으로 우리의 內部를 恆常

檢討하고 그를 是正 補完할 것이 要望된다.

그리고 저들은 至今 毛의 談談打打式 協商戰術로 우리社会의 各界各層에 저들의 理念과 工作員을 浸透시켜 自己들의 革命根拠地를 構築하려 할 것이다.

對策에 資하기 위하여 다음 章에서 우리 社会의 各界各層의 強弱點을 저들의 思考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4. 北韓이 보는 韓國의 社会階層別 強弱点

前述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원수들의 内部矛盾과 弱点들을 비롯한 온갖 可能性을 能熟히 利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弱者의 立場에 있는 北韓이 우리 国力을 弱화시키기 위한 瓦解戰法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특히 人口面에서 劣勢에 処해 있는 저들은 韓國民의 總和團結을 瓦解해야할 立場에 있다.

그러기 위해 北韓은 저들의 理論的 基礎인 矛盾論과 階級鬭爭說을 適用하여 韓國社会의 階層間的 利益相衝關係를 社会的 矛盾으로 描写하고 이를 階級鬭爭으로 昇華시켜 우리國民의 分裂을 造作하는 것이다.

여기서 北韓은 저들의 對南赤化戰略遂行에 沮害되는 層을 反革命勢力으로 規定하고 저들에게 利用될 수 있는 層은 革命勢力으로 包摂動員하여 前後者間的 離間反目을 造成하여 우리의 力量을 破壞하려 한다.

따라서 저들의 立場에서 볼때 前者는 強者요 後者は 弱者일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毛沢東의 矛盾論에서 볼때 저들은 強者인 前者에도 저들이 利用할 수 있는 弱点이 있을 것이고 弱者인 後者에게도 저들이 利用할 수 있는 強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社会의 모든 階層에는 各各 저들이 利用할 수 있는

弱点과 또 利用할 수 없는 強点이 있을 것인데 果然 그것은 어떤 것일까? 저들의 論理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가. 強者 (革命의 対象)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現段階에 있어서 南朝鮮革命의 対象은 美帝國主義 侵略勢力과 그 주구들인 지주, 隸屬資本家, 反動官僚輩들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 註, 金日成著作選集 第4卷 P.389)

이것은 農村에서의 地主나 經濟人, 그리고 現 韓國 政權의 高級公務員들을 모두 「打倒해야할 対象」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 理由를 金日成 一黨은 「南朝鮮의 地主, 매관자본가, 反動 官僚輩들은 政治, 軍事的으로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南朝鮮을 美帝의 軍事的 附屬物로 植民地 掠奪地로 팔아넘겼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規定하고 있다. (※ 註, 「勤勞者」 1970年 第10号 P.52)

그러면 具體的으로 北韓이 規定하고 있는 우리社會의 地主 買弁 資本家 및 反動官僚들이란 어떤 階層이며 또 이들에게는 各各 어떤 強弱점이 있다고 볼 것인가?

(1) 地 主

地主에 對한 共產主義者들의 概念은 「土地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農民들에게 小作주어 各種 形態로 農民들을 搾取하는 階級」이라고 말하고 있다.

繼續해서 地主는 封建地代의 形態로 農民들을 苛酷하게 搾取하는 外에 經濟外的 강제를 適用하며 資本主義下에서의 地主는 資本家들

과 함께 勞働者, 農民들에 對한 搾取者로 登場한다고 말하고 있다.

(※ 註, 社会科学辞典」 北韓科学院 P.392)

그래서 地主는 帝國主義와 結託 農村에서 封建的 諸關係를 維持하며 帝國主義 侵略의 支柱로 되기 때문에 「革命的 打倒對象」으로 된다는 것이다.

現在 北韓은 南韓内の 地주를 「10萬名으로 推算하고 있으며 이 10萬名의 地주가 전 耕地面積의 40%에 달하는 土地와 全体 山林의 70%에 달하는 私有林과 其他 河川, 부지 干拓地, 果樹園 등 막대한 土地를 所有하고 總農家戶數의 50%以上인 140萬戶의 小作農家를 搾取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註, 上掲書 P.395 및 金日成의 인도네시아 「알리바르함」 社会科学学院에서한 講義 1965. 4.15)

또한 南韓農村의 「지주계급은 收穫高의 50~60%에 달하는 高 小作料를 비롯한 各種 形態의 中世紀的 搾取를 農民들에게 強 要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이로 因해 1969년에는 全体 農家の 90%에 해당하는 225萬戶가 絶糧狀態에 빠졌다」고 主張하고 있다. (※ 註, 「勤勞者」 1970年 第10号 P.53)

그러나 大韓民國 農水産部の 發表에 의하여 1968年 現在 韓國의 全体農家가 257萬 8,526号中 67.4%가 1町步以下를 所有하고 있는 小農家이며 15.8%의 農家가 1~2町步를 所有하는 中農이며 6.8%의 農家가 2町步以上을 所有하는 大農家라고 한다.

(※ 註, 世界大百科辞典 學園社 1970年版 P.159)

이와 같은 狀況을 놓고 보면 北韓은 1~2町步의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中農以上을 모두 地주계급으로 推算하고 있다는 結論이 된다.

1946年 3月5日에 實施한 北韓의 土地改革에서도 5町步以上을 所有한 農家를 地주로 規定하여 肅清對象으로 삼았는데 1~2町步 所有의 農家까지 地주계급으로 取扱한다는 것은 所謂 「革命的 對象」을 規定함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디렌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은 그것이 비단 큰 成功을 거두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農地改革」으로 事實上 「地주계급」은 法的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北韓은 소위 「南朝鮮革命」에서 반드시 「打倒되어야 할 對象」을 選定해야만 한다는 共產主義的 矛盾論에 기초하여 中農水準에 있는 南韓의 自作農家까지 地주계급으로 造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이 對南工作에서 이른바 「革命的 中心勢力」인 勞働者 勞民層에 浸透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根本要因으로 되고 있으며 北韓 自身도 한때 南韓의 農村을 「革命根拠地」로 삼아야 한다는 毛沢東式 게릴라 戰法을 實踐에 옮기려다 失敗한 原因으로도 되고 있다. (※ 註, 自首間諜 「성낙오」 陳述, 保安司 1972年度 北僞對南工作諜報 P.79)

그리고 北韓은 1969年度에 全体農家の 90%인 225萬戶가 絶糧狀態에 빠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보리고개」같은 農村의

絶糧狀態는 벌써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이다.

또 北韓은 우리政府와 資本家들이 農民을 搾取하고 있으며 美国의 對韓食糧援助 亦是 農民을 彈压하기 위한 手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虛偽宣傳은 저들이 우리의 實情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는데 基因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惡辣한 것은 이와 같은 虛偽宣傳으로 政府와 農民, 農民과 都市民, 우리國民과 美国間에 矛盾을 造作하여 우리 農民을 저들이 目的하는 反政府, 反美運動에 利用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 經濟의 成長으로 美国의 食糧援助는 終息되고 政府의 高米價政策과 새마을 運動으로 우리 農民의 所得은 增加一路에 있으므로 北韓의 虛偽宣傳은 그 實効性이 없겠지만 여기서 한가지 警戒해야 할 것은 저들의 虛偽宣傳은 韓國實情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는 北韓 靑少年들에게 對南侵略意慾(南韓赤化의 使命感)을 扶植함과 同時에 國際적으로 우리 韓國像을 誤導할 可能性이 있다는 事實이다. 勿論 不在地主의 默認 都農間의 隔差 및 脆弱地區等 우리에게 弱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不在地主의 根絶과 함께 都農均衡 및 農村의 發展에도 注力해야 하겠지만 惡意에 찬 北韓의 虛偽宣傳도 粉碎해야 할 것이다.

(2) 隸屬資本家(買辣資本家)

共產主義者들의 解釋에 따르면 隸屬資本家라는 것은 「植民地

및 半植民地 나라들에서 外來 國際主義 独占資本家들에게 隸屬되어
그들과 함께 自己 나라 勤勞者들을 搾取하는 資本家들을 말한다」
고 한다. (※ 註, 上掲 社会科学辞典 P.278)

隸屬資本家を 中国(中共)에서는 買辦資本家」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國際主義의 앞잡이로서 勤勞者들을 搾取할뿐 아니라 民族
資本家들까지 抑壓하며 자기 나라의 自由와 獨立을 위한 民族解放
運動을 彈壓하는 가장 反動的이며 売国 売族的인 搾取階級」이라고
하면서 「反革命의 中心勢力」이라고 말하고 있다. (※ 註, 上掲書
P.278)

다시 말하면 北韓이 소위 「南朝鮮 革命」을 遂行함에 있어서
이들 「隸屬資本家」를 打倒하지 않고서는 「革命의 勝利」를 이룩
할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南朝鮮의 지주 買辦資本家 反動官僚輩들
은 美帝의 비호밑에 人民들을 抑壓하고 搾取하며 나라와 民族의
利益을 犠牲으로 하여 權勢와 享樂을 누리고 있는 階級的 원수」
들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 註, 金日成 著作選集 第4卷 P
389)

北韓은 現在 南韓의 隸屬資本家の 수와 그 規模를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韓國經濟人協會에 網羅되고 있는 者들을 비롯한 約 500名의
隸屬資本家들이 南朝鮮 製造工業의 約 40%, 採取 工業의 約 80%
對外貿易의 50% 이상을 掌握하고 있다.

이밖에도 1千餘名の 隸屬資本家들이 南朝鮮 經濟의 거의 大部分을 掌握하여 勤勞者들을 酷毒하게 搾取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註, 上掲 科学辞典 P.278)

이와 같은 北韓의 主張은 事實上 南韓의 經濟人들은 거의 모두 「階級的 원수로 規定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南韓의 經濟를 모두 「미제」 또는 日本의 「植民地的經濟」로 단정하려는 進술적 의도가 分明히 나타나고 있다. 「韓國經濟年鑑」 1971年版에 의하면 1970年 現在 「全國 經濟人聯合會」에 網羅된 會員은 163 名이며 大韓民國의 重要 企業체로 登錄되고 있는 것이 鉍業分野의 江東炭鉍 代表 申德均을 비롯한 160 個所 製造業의 開谷寒天工場 全琪俊을 비롯한 1,136 個所 建設業의 建昌企業 金龍學을 비롯한 91 個所 전기 개스업 23 個所, 貿易業 149 個所, 商業 129 個所, 金融, 保險, 証券業 59 個所, 輸送 荷役業 88 個所, 서비스업 54 個所, 水産業 31 個所, 國營企業체 29 個所等 都合 1,949 個所이다. (註, 韓國經濟年鑑 1970年版 P.815)

이것은 勿論 重要 企業체만을 간주된 統計이기는 하지만 韓國의 經濟部門을 거의 網羅한 것이라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北韓은 1,949 個所의 重要企業체中 1,500 個所 以上을 隸屬資本家로 取扱하고 있으며 그들을 「打倒해야 하는 첫째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는 外國의 차관 또는 外國과의 合作形式으로 外國의 資本을 끌어들이고 있는 業체가 相当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經濟를 外國에 팔아 넘기는 것」은 絶對로 아니다.

北韓은 맑스·레닌主義 原則을 機械的으로 導入하여 韓國의 現事態를 分析評價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이 전혀 豫見치 못한 現實이 介在되고 있다.

資本主義下에서는 搾取者인 資本者階級과 被搾取者인 勞動階級間的 階級的 矛盾이 첨예化되어 그것이 階級鬭爭으로 發展하고 급기야는 搾取階級을 打倒하는 社會主義 革命으로 이끌어 간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그들이 主張하는 理論과는 달리 資本階級과 勞動階級間的 「矛盾」이 矛盾으로서가 아니라 勞資間的 協助로 社會的 富를 이룩해 가고 있다.

여기서 北韓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隸屬資本家」를 打倒對象으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對南工作을 強化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革命의 動力」인 勞動階級은 전혀 이에 應하지 않고 있으니 北韓의 對南工作은 失敗만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소위 「南朝鮮 革命」의 遂行을 위해 對南宣傳을 끝이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 수록 더욱 強化되고 있다.

最近 北韓은 南韓의 勞動階級이 中世紀的인 暗黑時代에 살고 있으며서도 革命的 覺醒이 不足하다」고 宣傳을 하고 있다.

誇張하면서 「最大限의 이윤 추구에 血眼이 되어 있는 南朝鮮 隸屬資本家들은 監獄과 같은 作業場에서 勞動者들에게 하루 12~18時間 지어는 20時間의 긴 勞動時間을 強要하면서도 최저 生活費의

4分の1 또는 5分の1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주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註 「勤勞者」 1970年 第10号 P.53)

이亦是 北韓의 矛盾造作戰術이다. 여기서 그들이 노리는 焦點은 이러한 宣傳이 그대로 南韓의 勞動階級에게 먹혀들어가 자기의 処地를 한탄하는 「분노」와 함께 資本家階級을 打倒하는 「革命鬭爭」에 끌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그것은 너무나 現實과는 距離가 먼 妄想에 지나지 않는다. 特히 韓國의 勞動者들은 共產主義者들이 보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

北韓은 現「南朝鮮 革命」에서 이러한 점이 가장 弱点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南韓의 勞動階級에게 「階級的 覺醒」을 주기 위한 對南宣傳에 힘을 集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는 주어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作用을 하는 것이 바로 人間이다.

人間은 어떤 面에 있어서는 受動的인 位置에 있지만 또 다른 面에서는 자기에 대하여 周圍에 대하여 그리고 未來에 대하여 作用하는 面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人間の 本質이 있다.

唯物史觀이나 맑스·레닌主義 思想으로 이 人間の 本質을 변혁시킬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우리는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해 저들의 時代錯誤의이며 沒認識한 對韓觀을 是正시켜 주어야 하겠다.

그와 同時에 우리는 反國家的 反社會的 企業人들의 橫暴와 破廉

恥한 企業經營方式도 是正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韓國에는 여러 先進友邦들의 資本이 誘致된 것인 바 우리는 그들의 過當競争과 그들과 協調하게 될 우리 企業人들의 非自主體的 行爲를 防止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行爲는 共產主義者들의 矛盾造作對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教條的 金日成도 過去의 中國에서 처럼 外國資本家들의 過當競争을 그들 所屬國家間的 對立反目으로 助長하려고 할 것이다. (註, 毛沢東選集, 第3卷 P.82)

(3) 反動官僚層

北韓의 所謂 「南朝鮮 革命」에서 打倒해야 할 對象의 하나로 「反動 官僚輩」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反動 官僚輩」라고 하는 것은 現 南韓의 政黨, 社會團體, 行政, 立法, 司法機關等에서 服務하는 責任的 地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正確히 그를 区分하는 基準은 서 있지 않다.

다만 金日成이 指摘한 대로 「現 南朝鮮 政權은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 官僚輩들의 利益을 대변하는 反人民的인 反動 政權」이기 때문에 「朴正熙 政權과 어에 추종하여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反動官僚輩로 規定하고 있다. (註 「勤勞者」 1970年 10호 P.54)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가장 憎惡하는 對象은 反共運動에 從事하는 層이다. 저들의 專門的 欺瞞術策을 暴露 沮止하는 原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現在 北韓 勞動黨 中央委員會 調查部에서 掌握하고 있는 南朝鮮 人物中에서는 現 南韓의 各政黨, 社會團體, 行政, 立法 司法 軍機關에서 係長級 以上 (軍에서는 領官級以上)을 따로 存案해 두고 있는바 係長級 以上 人物을 「打倒 내지는 孤立시키는 革命的 對象」으로 取扱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는듯 하다.

이들이 하고 있는 南韓 人物의 存案은 本籍, 現住所, 姓名, 生年月日, 職級, 家族狀況, 親友關係等 一般的인 事項으로 부터 學歷과 經歷에서 性格 趣味까지 可能的 모든 情報를 蒐集하는 方向으로 努力하고 있다. 특히 本人의 「思想動向」이라는 項目을 別途로 設定, 比較的 具體적으로 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을 收錄하고 있는데 北韓이 重點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項目이다.

勿論 모든 對象人物이 完全無缺하게 存案되어 있지는 못하며 資料, 情報蒐集源 등에 따라 각이하다.

가령 例를 들면 南韓의 人物 存案 카드는 보통 4×6 판 크기의 쉐트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것은 단 한장에도 다 차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 것은 10장이 넘는 것도 있다. 具體적인 것에는 趣味欄에 바둑이 몇급, 골프가 핸디 몇이고 일주일에 몇번 골프장에 가는가 하는 것까지 記錄되어 있다.

勿論 이 情報가 모두 正確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根拠提示를 하고 있다.

軍에 대해서는 그 限界를 더욱 明白히 하고 있다. 高級將校 (中領以上)는 無條件 打倒해야 할 「革命的 對象」으로 삼고 있

으며 下級指揮官(위관 장교)은 孤立시키거나 또는 包摂하며 一般兵士는 包摂 利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의 對南工作에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을 「遵守」하면서 國軍의 瓦解工作에 沒頭해 왔다. (註, 保安司 發行 「北韓 對南工作諜報」 1968年版 69年版 72年版 21)

아무튼 現 南韓 政權을 「反人民的 政權」으로 烙印 積은 金日成 一黨은 이른바 反動官僚輩들을 打倒한다는 것은 그대로 現 南韓 政權을 轉覆시킨다는 것으로 直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南朝鮮人民들은 美帝 植民地 統治를 清算하며 現 南朝鮮 政權을 轉覆하고 各階各層을 網羅하는 人民政權을 樹立할 때에만 비로서 진정한 解放을 達成할 수 있다」고 떠벌이고 있다. (※ 註, 金日成 著作選集 第4卷 P.392)

이러한 對南戰略은 그대로 불변하는 北傀의 基本戰略으로서 南北 對話가 始作된 現 時点에서도 이와 같은 基本戰略을 變更시켰다는 徵候는 전혀 없다.

1972年9月 日本 「마이니저」新聞 記者들과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南朝鮮의 民主共和黨과도 接觸하겠다」고 하면서 「祖國統一을 平和的으로 풀자면 南北朝鮮의 여러 政黨들 사이에서 祖國統一에 대한 政見들을 交換하고 合理的인 方途들을 摸索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底意가 어디 있는가는 不門可知的 事實이다. (註 「勤勞者」 1972年 第10号 P.56)

이미 앞에서 言及한바 있지만 過去の 國共協商時의 中共처럼 金

日成도 与野間の 対立關係만 아니라 同一政党 内部의 主流, 非主流 間의 軋轢關係, 強隱兩派間的 反目 上下關係의 不和集團内部의 中道 派의 合理的 思考等 그야말로 「온갖 可能性」을 우리 分裂工作에 能熟하게 利用하려고 한다. (註 毛沢東選集 第3卷 P.234)

北韓의 이와 같은 工作은 이미 體驗한 바와 같이 1948年의 「南北諸政党 社会団体 連席會議」戰術에서 볼 수 있었다.

北韓은 近年에 와서도 이러한 方法으로 韓國指導層을 瓦解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与野党群小政党를 비롯한 各界社会단체에 浸透하려 하고 있다. (註 情報司 發行 新聞조서 第9号 체간 김 훈진 술 1973.4.28)

企業主들의 利己主義, 政治人들의 權慾 이것은 저들이 보는 民主 社会의 本質的 弱点인 것이다.

이런 面에서 우리는 自体保安과 將次 南北交流 및 接觸에서 格 別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政府와 國民間의 離間, 与野軍官民間의 이간, 소위 「反動官僚輩」들의 孤立등이 그동안 北韓이 노력한 對南工作의 焦點이었는데 모두가 失敗만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65年~68年 사이의 이른바 「行動段階」에서 北韓은 訓練을 많이 쌓은 무장공비등을 大量 南派하여 要人暗殺, 破壞, 經濟 破綻등 現 南韓政權 轉覆에 힘을 傾注했으나 모두가 完全한 失敗로 끝을 맺었다.

이 失敗의 原因을 金日成 一党은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南韓內에 아직까지 鬪爭을 指導할만한 地下黨 組織이 微弱하다.

둘째 現 南韓政權에 不滿을 가진 大衆이 組織化되지 못했다.

셋째 領導階級으로서의 勞動階級이 鬪爭에 踴기할 만큼 自身들의 이해관계에 敏感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南韓 勤勞大衆들이 生命을 걸고 鬪爭에 일어설만큼 生活에 窮乏하지 않다는 것이다.

(※ 註, 保安司 發行 北韓對南工作諜報 1972年版 P.75~77)

이상과 같은 北韓의 分析은 그것이 비록 部分的인 것이기는 하나 北韓이 對南工作을 遂行함에 있어서 커다란 障礙가 되고 있다는 것을 率直히 自認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弱者革命의 動力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北韓이 말하는 革命의 動力이란 「革命을 促進시키며 革命課業을 解決하기 위하여 鬪爭하는 階級들과 階層」들을 말한다.

北韓은 現 南韓革命의 動力에 속하는 階級과 階層을 勞動者階級 農民, 進歩적인 青年學生, 知識人, 愛國的 軍人, 小資產階級, 그리고 一部 愛國的 民族資本家까지 包含하는 「廣範한 勢力」이라고 보고 있다.

이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革命의 對象인 「地主, 隸屬 資本家, 反動官僚輩」들을 反對하는 鬪爭에 踴기하여 現政權을 軛覆

하며 北韓이 바라고 있는 共產政權을 樹立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이러한 判斷이 얼마나 虛荒된 妄想인가 하는 것은 오늘의 現實이 여지없이 立証해 주고 있다.

그러면 北韓이 소위 革命의 動力이라고 하는 階級, 階層들을 具體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勞動階級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解釈에 따르면 勞動階級이란 「生産手段을 가지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資本家에게 自己의 勞動力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 賃金勞動者를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勞動階級은 現代社會의 가장 先進的이며 가장 革命的인 階級」이라고 말하고 있다. (註 上掲 社會科學辭典 P.86)

그들은 또한 「勞動階級이 自己의 階級的 処地와 自己의 지난 歷史的 使命에 대한 자각성으로 하여 資本主義的 榨取와 낡은 社會의 온갖 질곡을 清算하는 革命鬪爭에 가장 切實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를 轉覆하는 革命鬪爭에 누구보다도 積極 나서게 되며 領導的 役割을 遂行한다고 보고 있다.

「맑스」는 그의 著書 「資本論」에서 맷들은 封建社會의 生産力을 나타내 주며 증기 기관차는 産業 資本主義 生産力을 나타내 준다고 說明하고 있다.

科學과 技術이 發展함에 따라 새로운 生産力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 生産관계가 同時에 그에 適應하게 交替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兩者間에는 同時に 共存할 수 없는 矛盾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間的 새로운 對立과 鬭爭이 惹起된다고 한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이 激化하면 할 수록 兩階級の 鬭爭은 尖銳化되고 나중에는 革命을 招來하여 새로운 社會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金日成은 「南朝鮮에는 勞動階級이 적고 또 現代的인 大規模工場들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이 얼마 없다고 하여 勞動階級과 이事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아니된다. 어쨌든 勞動階級은 無産階級이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가장 革命的인 階級이다. 그러므로 南朝鮮에서는 勞動階級을 覺醒시키고 그들속에서 黨組織을 늘이며 그것을 基礎로 하여 漸次 広範한 群衆속에서 革命隊伍를 擴大하여 나가는 方針을 取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註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에서 結論」 1964.2.27)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은 韓國의 勞動階級이 적은 것을指摘하면서도 그는 教條的으로 勞動者들의 革命可能性을 描写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6年後인 1970年11月 第5次 黨大會에서 그는 「總決期間에 南朝鮮에서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 南朝鮮에서 民族的 階級的 矛盾이 더욱 尖銳化되고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広範한 人民大衆의 革命的 進出이 積極化되었으며 ~ 云云」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韓國에서 經濟的 發展과 함께 勞動者階級이 增大되었다는 事實을 是認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強한데는 반드시 弱點도 있다는 毛沢東式 矛

盾論法에 依해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우리의 強点이나 그 代身 그 裏面에는 資本主義로 뒤집어 얹는 勞働者들도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의 論法대로 하면 韓國에서의 "프로레타리아" 革命條件은 6年前에 比해서 相當히 成熟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의 實情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勞使間의 對立은 尖銳化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것은 勞働者의 覺醒이 不足한 때문이라고 본다. 오래 前부터 그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勞働階級이라고 하여 저절로 革命家로 되는 것은 決코 아니다.

특히 南朝鮮의 勞働者들은 資本主義 制度下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낡은 思想殘在를 지니고 있어 이를 改造하지 않고서는 鬪爭隊列에 動員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註 金日成 著作選集 第5卷 P. 57~58)

이것은 北韓이 보는 南韓 勞働者階級에 대한 評價이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한가지는 南韓 勞働者들이 소위 「革命隊列」에 들어서야 한다는 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自己의 이해 관계로 보아 그럴 必要性을 가지지 않는다는 點이다.

北韓에서 불대 生産手段을 社會化하고 모든 財産을 공유한다는 것이 南韓 勞働者에게 매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實際는 전혀 그렇지 않다.

歷史는 財産을 共有해야만 반드시 勞働者들의 「樂園」을 建設할 수 있다는 共產主義者들의 主張은 完全히 妄想임을 立証했다.

蘇聯의 어떤 工場을 구경하러간 사람이 그 곳 勞働者들에게 이런 質問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工場의 主人이 누구요?」

「우리요」 勞働者들은 對答했다.

「이 工場 垡地의 임자는 누구요?」

「그것도 우리요」

「그럼 이 工場에서 나오는 製品은 누구의 物件이죠?」

「勿論 우리들 것이지요」

밖의 넓은 広場 한구석에 너절한 自動車가 세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또 물어 보았다.

「저 自動車는 누구의 車입니까?」

勞働者들의 對答이

「그것도 우리 車라고 할 수 있지만 한대는 工場長이 쓰는 차고 또 한대는 政治委員, 그리고 나머지 한대는 秘密警察이 쓰는 차지요」

바로 같은 사람이 美國의 어느 工場을 구경갔다가 그 곳 勞働者들에게 물었다.

「이 工場의 主人은 누구니까?」

「헨리 .포드지요」

「工場 垡地의 임자는요?」

「헨리 .포드지요」

「工場에서 나오는 製品은 누구의 물건이지요?」

「헨리 . 포드의 물건이지요」

工場 밖의 넓은 廣場에는 가지 각색의 新式 自動車가 짝 들 어차 있었다.

「저기 저 많은 自動車는 누구의 것이지요?」

「아 그거야 우리들 차지요」

勞働者들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勞働者들의 生活水準이 向上 되면 구태어 그 制度를 打倒하고 모든 財産을 共有해야만 한다는 意識은 產生될 수도 없다는 事實을 共產主義者들은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이 遂行해 온 對南工作에서 事實上 勞動階級속에 깊이 파고 들어 가려는 工作이 成功한 例는 極히 드물다. 차라 리 전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들에게는 實用主義的 側面도 없지 않다.

1969年以後 실업자와 반실업자들에게 浸透하려는 傾向이 濃厚하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對南工作에서 勞働者 隊列속에 浸透하려는 戰術이 失敗했음을 立証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 亦是 韓國에서의 矛盾弱體와 온갖 可能性을 利用하려는 實用主義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理論이나 毛沢東의 新民主主義革命論은 勿論이고 金日成의 民主主義戰略도 그와 같은 實用主義의 產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共產主義로 가는 實用主義다. 金日成은 南韓에서의 이러저러한 事件(例를 들어 진보당 사건

4.19 등) 들이 모두가 「南朝鮮人民들의 英雄的인 鬪争」인 것처럼 描写하고 있다. 오직 勞動階級이 領導하지 못한 것을 慨嘆한 말이다.

北韓은 1955年 12月에 組織된 南韓의 進歩黨을 맑스·레닌主義에 基礎한 「南朝鮮革命家들의 合法的 政黨」이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4.19 후 組織된 社会大衆黨도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革命的 政黨이었다고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進歩黨이나 社会大衆黨이 破壞된 重要的 原因이 「그들이 내세운 鬪争에 勞動者, 農民등 広範한 大衆을 組織動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勞動階級이 결기하지 않은 鬪争은 决코 勝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註 勞動黨 第5次 大會에서)

北韓은 北韓의 勞動者階級이 소위 「革命的 權威的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階級으로서 成長할만한 歷史를 지니지 못했다는 點과 지난날 數的으로 그리 많지 못하였기 때문에 領導階級으로서의 役割을 할만한 基盤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의 矛盾과 弱點을 비롯한 온갖 可能性을 能熟하게 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金日成의 論理는 實用主義的인건 하나 그것은 毛沢東의 實踐論과 矛盾論에 가깝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그에 対処할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認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弱点 特히 指導層과 인테리層의 弱점이 아닐까?

(2) 農 民

共產主義者들은 農民이란 農業에 從事하고 있는 小生産者 階級이며 農民의 処地는 支配的인 生産方式의 性格, 그 發展의 經濟法則들에 의해서 規定된다고 말하고 있다. (註 上掲 社会科学辞典 P.95)

農民은 원시 共同体 体制의 崩壞期에 形成되었으며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農民의 階級분화가 進行되었다고 한다.

即 農民은 地主 富農 高利貸金業者의 搾取를 당하여 雇農, 貧農 中農, 富農으로 더욱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共產主義者들은 農民들중 雇農이나 貧農을 革命의 動力으로 보고 中農은 孤立 또는 利用하고 富農, 地主들은 「階級的 원수」로 打倒할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韓은 「農地改革」으로 實地的인 地主階級은 없어진 셈이며 前述한 바와 같이 2町步以上の 土地를 所有한 大農家가 全体農家の 6.8%를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條件에서 北韓이 내세우는 「南朝鮮 革命」은 勞働者, 農民에게 全的으로 依賴할 수 없는 진술적 高민이 있는 것이다.

「레닌」은 「農民問題의 正確한 解決과 勞農同盟의 強化가 革命勝利의 決定的 担保로 된다」고 強調하였다. (註 레닌著作 選集 第 11卷 P.412) 따라서 北韓도 南韓의 農民問題를 「南朝鮮 革命」

의 重要한 關鍵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金日成은 「南朝鮮에서는 勤勞農民大衆을 爭取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理由로서 그는 「南朝鮮에서 農民은 數的으로 많을뿐 아니라 그들속에는 自己生計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半프로레타리아들이 많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南朝鮮에서 勞動者와 함께 農民은 革命의 主力軍」이라는 것이다. (註 勞動黨 中央委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에서 한 結論 1964.4.27)

따라서 1965年頃까지 北韓의 對南工作은 都市와 함께 農村에 소위 「革命根拠地」를 삼으려는데 焦點을 두었다. 이것은 「農村으로 都市를 包圍한다」는 毛沢東式 계령과 戰術인데 中共이나 越南에서는 어느 程度 成功한데 반해 南韓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對해 金日成은 勞動黨 第5次 黨大會에서 「우리나라 革命은 우리 나라가 처한 特殊한 環境에서 그에 알맞는 새로운 戰術을 適用해야 한다고 吐露한바 있다. 이것은 南韓의 農村을 革命根拠地로 삼으려는 北傀의 戰術이 完全히 失敗했음을 自認하는 것이다.

農民問題에서 또하나提起되는 農民이 가지는 二重的 性格이다.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下에서 農民은 그 經濟的 地位로 보아
二重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註 社会科学辞典 P.
95)

即 한편으로는 生産手段의 小所有者로서의 側面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自身の 勞動을 들여서 일하는 勤勞者의 側面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民에게는 重要性이 있으며「革命 鬭爭」에 積極 參與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서 내세운 것이 「勞動階級은 革命에서 貧農에 튼튼히 依拠
하고 中農과 同盟하며 富農을 孤立시키는 戰術인 것이다. (註 上
揭書 P.95)

그러나 現 南韓의 實態로 보아 貧農이 中農을 孤立시키고 富農
地主를 打倒할 만큼 農民의 階級분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南韓의 農民은 貧農과 中農의 生活
水準 差異가 그리 크지 않으며 中農과 富農의 差異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이런 속에서 階級的인 鬭爭을 이르게야만 할 必要性
을 切感하지 못하며 北韓의 對南工作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은

要因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銘心해야할 理由는 農民들의 二面性 即 土地의 所有者란 事實以外에 우리 農民은 過去와 달리 大部分이 對共軍事訓練과 反共政訓教育을 받은 軍出身이란 事實과 至今 새마을運動으로 希望에 차있다는 事實인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 農民들에게 對北競争意識을 注入시킨다면 보다 큰 效果를 올릴 것으로 생각된다.

(3) 인테리(知識人)

인테리란 一定한 知識을 갖고 있고 精神勞動에 從事하는 社會의 間層을 말한다. 이에는 學者, 作家, 藝術家, 醫師, 弁護士, 敎員, 科學者, 記者, 技術者, 公務員 등이 屬하며 인테리는 物質的 富의 生産에서 독자적인 地位를 차지하지 못하는것 만큼 階級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테리는 반드시 一定한 階級에게 복무하는데 資本主義社會에서 인테리는 大部分 資本家 階級을 위하여 복무한다고 말하고 있다. (註 上揭書 P.32)

그러므로 그들의 社會的 地位는 生産手段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雇傭된다는 點에서 勞動階級の 奴地와 비슷하며 바로 이런 事情은 그들에게 兩面性을 띄게 한다는 것이다.

即 이들 大多數의 地는 勞動階級の 편에 가까우나 기회만 오면 支配的 地位에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로 부터 부르조아지에 대한 미련을 끊어 버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부터 인테리는 一般的으로 革命에서 動搖하며 機會主義的 立場을 取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의 말대로 이들 인테리들은 階級的 意識, 社會主義的 意識을 전파하는 교량자적 役割도 同時에 遂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를 과도적 기간중 最大限度로 利用한다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基本戰術인 것이다.

金日成은 勞動黨 第4次黨大會 (1961年9月) 報告文에서 「오늘 南朝鮮 인테리들은 우리의 反帝反封建 民主革命 發展에서 現實的으로 重要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南朝鮮 革命」에서 인테리의 重要性을 強調한바 있다.

또 實際的으로 北韓은 南韓의 勞動者와 農民등 基本 動力에 의거하여 革命을 遂行할 수 없는 條件에서 對南工作의 中心을 南韓 인테리의 包摂에 두어 온 것도 事實이다.

1963年度 1年間 南派된 對南間諜들의 任務中에서 知識人 包摂이 거의 80%以上을 차지하였다는 한가지 事實만으로도 그들의 對

南 인테리 戰術을 얼마나 重要視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註 保安司 發行 1964年度版 北韓 對南工作諜報 P.68)

그러나 인테리가 지닌 兩面性 때문에 北韓은 南韓의 인테리를 어디까지나 包摂 利用하는데 끝일뿐 그들을 革命의 基本動力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美帝를 몰아 내고 現政權을 轉覆시킨다는 첫째 目標 達成을 위해서는 南韓의 인테리를 包摂利用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 關한 共產主義者들의 理論을 보면 일찍이 "레닌"은 「인테리란 規律과 組織이 無能하다」고 했고 "스탈린"은 「인테리에 게는 動搖性이 있다」고 했으며 毛沢東은 「인테리는 침병적 加교적 任務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共產主義者들의 「인테리」에 對한 不信思想은 傳統的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인테리의 合理的 思考, 理想主義的 傾向을 巧妙히 利用하여 現實的 不条理와 不正腐敗에 對한 批判 攻擊을 하도록 誘導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테리의 化살은 反革命勢力을 打倒한 뒤에는 共產主義者들에게 겨누어 질 것이므로 그들은 인테리를 過渡的으로만 利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金日成은 우리 나라 인테리層의 特殊派 即 出身性分은 나쁘지만 傳統的인 獨立精神에서 비롯한 反抗心理를 反帝反政府運動에 利用可能性을 強調하고 있다.

(※ 勞動黨 第5次 大會에서)

(4) 청년학생

김일성은 노동당 才 5次 大会 報告文에서 「1960年 4월에
있는 인민봉기(4.19)는 남조선革命運動 發展에서 새로운 전환점
을 이루어 놓았다」고 전제하고 「南朝鮮 青年學生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라고
지적하였다. (註 「근로자」 1970年 11月号 P. 431

北韓은 南韓의 青年學生을 그 출신성분으로 보아(대부분 지주 자
본가 부유층의 자제로 봄) 「혁명의 편에 설 수 있는 기본계층으
로는 보지 않으나 인테리와 같이 최소한 포섭 이용할 수 있는
혁명의 동력으로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4.19를 비롯해서 韓一會談을 반대하는 1964年の 6.3 사태, 한
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年 8月사태, 1967年の 選舉 반대 등 모두
가 青年學生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을 소위 혁명투쟁에
인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1960年以後부터는 北韓의 대남공작에서 남한의 학원내
에 침투하는 임무를 주임무(主任務)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는것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日本을 통한 우회침투(조총련 간첩활동)에서 공작임
무의 중심을 남한의 청년학생에 두고 있음은 체포된 조총련 간첩
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청년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제한성(출신성
분, 확고한 계급적 각성의 부족 동요성등)으로 하여 「南朝鮮革命」

의 主体力量으로는 되지 못하나 北韓은 「青年學生들의 발랄한 意氣와 正義感, 組織力을 反美反政府鬭爭에 結付시키려고 한다.

특히 金日成은 南韓의 學生運動을 政治的 自由로 위한 鬭爭으로 보고 5次 党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한바 있었다. 卽 그는 「政治的 自由를 위한 青年學生들의 鬭爭을 더욱 目的意識化하면서 그들의 民主主義運動을 勞働者 農民들의 政治鬭爭과 密接히 連結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것은 南北學生들의 學生運動을 人民革命과 連結시켜 그의前衛로 利用하자는 것이다.

(5) 소자산계급(小資産階級)

소부르조아지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중간에 놓여 있는 계급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의 생산수단을 가진 農民이나 도시 수공업자 소상인(小商人) 등과 같이 주로 자기 努力으로 生活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자산계급도 2중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자산계급이 약간의 생산수단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면으로 볼때에는 자본가 계급에 가깝고 자기의 努力으로 生活하는 면으로는 勞働階級에 가까운 근로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2중성으로 말미아마 그들은 혁명에 대한 태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 사이에서 동요하는 계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자산계급은 주민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이야 한다라는 전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혁명이 승리」할때까지 이용하고 일단 승리하면 숙청대상으로 삼는 계층이 이 소자산계급인 것이다.

(6) 민족자본가

외래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자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민족자본가라 한다. 이에는 대부분의 중소 자본가들이 속한다.

민족자본은 외래자본 및 그들에 예속된 예속자본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민족자본가들은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견해이다.

북한은 남한의 민족자본가 들은 「원래 자기들의 자본토대가 미약한데다가 미·일 자본의 압박을 받을뿐 아니라 현 정권의 차별정책과 재정수탈로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으므로 그들의 계급적 처지로 말미암아 혁명에서 동요하기는 하나 미제를 반대하는 세력에는 합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註 上掲 社会科学辞典 P. 155)

(7) 小 結 論

北韓은 우리의 人口優位로 韓國의 絶對的인 強点으로 보지 않는다. 現段階에서 저들은 우리社會의 重要矛盾으로 民族的 矛盾 (美國과 韓國間의 利害關係對立) 이 있고 副次的 矛盾으로 階級

的 矛盾 (支配層=搾取階級과 被支配層=被搾取, 被抑壓階級間의 對立) 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저들의 矛盾造作法으로 韓國民을 瓦解弱 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矛盾觀에는 現實과 乖離되는 面이 많다.

그러나 앞에서 分析된 바와같이 우리社會에는 아직도 저들의 瓦解工作에 利用될 要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보는 強者에도 弱點이 있기때문이다. 強者(革命對象)의 覺醒과 政府의 協調를 自体弱點의 補完 是正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저들이 보는 弱者에게도 우리의 強點이 있다. 우리는 저들의 浸透 瓦解工作을 防止하기 위하여 脆弱層이 保有하고 있는 強點을 伸張 그의 弱點을 補充할 것이 要望된다.

5. 結 論

南北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에는 적지 않은 差異點이 있다. 韓國의 強點이라해도 北韓은 이것을 絶對的인 것으로 보려하지 않는다.

北韓은 唯物弁證法에 依해서 韓國의 強點속에는 반드시 潛在的인 矛盾對立要素가 있다고 보며 強點에는 반드시 弱點이 있다는 陰陽說을 믿으며 또 그것을 矛盾造作法에 依해서 顯在化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것 같다.

이를테면 北韓은 우리의 最強點인 韓美紐帶關係에는 民族的 矛盾對立이 있고 우리의 經濟的 人的 優勢에는 階級的 矛盾이 潛在하고 있음으로 우리韓國民에게 民族的 階級的 覺醒을 注入시켜 反美 反政府運動을 展開한다면 우리의 強點을 弱點으로 顯在化할 수 있다는 論理이다.

이와 같은 論理에 따르면 北韓의 對南戰略의 本質은 韓國內部の 矛盾發掘 그의 造作·利用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의 可能性으로서 北韓은

첫째, 南韓社會의 構成員에는 個人主義, 利己主義가 強함으로 이를 能熟히 操作하면 韓國의 總力安保, 國民總和는 能히 瓦解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둘째 韓國民의 反共意識은 強要된 것이므로 反美法과 國家保安法을 癡棄시킬 境遇 韓國大衆의 革命的 覺醒은 提高될 수 있을 것

이며

셋째 韓國의 重要基幹産業은 外來 資本과 技術에 隸屬되어 있으므로 그로 因해 抑壓된 層을 對内外鬪爭에 動員한다면 이亦是 弱화될 것이며

넷째 富益富, 貧益貧의 社會傾向은 南韓社會의 本質的 現象이므로 韓國革命은 必然的인 것이며

다섯째 인테리, 青年學生層의 反抗的 批判的 心理動態에 革命的 目的意識을 注入시키면 이로 革命의 動力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이와같은 態度와 論理에는 많은 偏見과 獨斷이 包含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의 狂信性을 輕視하거나 嘲笑로 끝내서는 아니될것 같다.

저들의 非現實性은 輕視 또는 嘲笑하는 그自体를 저들은 우리의 弱點으로 보고 利用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現代共產主義의 創始者이며 鬼才의 戰略戰術家였던

「레닌」의 다음과 같은 翰句節을 되새겨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힘이 優勢한 敵을 打勝하는 일은 거기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했을 때에만 可能하다. 그努力이란 반드시 가장 綿密하게 注意깊게 慎重히 巧妙하게!

이를테면 어떤 작은 것이라도 敵内部의 모든 하자를 利用하는 것이다.

各國의 “부르조아지” 사이의 對立關係 個個 國內 “부르조아지”

들의 여러 가지 "구름" 또는 여러 가지 種類의 利害對立을 利用하는 것이다.

또 大衆的인 同盟者는 勿論이고 可能하면 一時的, 動搖的 不確實한 것, 甚之於是 不信性 있는者 條件附的인 것 까지라도 包摂利用해야한다. 그것이 어떤 적은 것이라도 모두 利用할 경우에 비로소 勝利可能할 것이다.

이와같은 것을 理解못하는것은 맑스主義와 科學的인 近代共產主義의 一般을 조금도 理解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註 레닌全集 才 31卷 P. 57 「共產主義 "左翼主義" 小兒病
1920年 4~5月)

이것을 「南朝鮮革命이 緊急하면 할수록~원수들의 矛盾弱點을 能熟하게 最大限으로 利用해야한다」는 金日成의 말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우리는 北韓의 對南戰略의 本質과 그들이 보는 「韓國의 強弱點」을 正確히 把握하고 그에 萬全을 期해야 한다.

本課題는 그의 一環策으로 이에關한 저들의 價值體系와 論拠를 分析해 보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事情으로 아직은 研究試器에 끝냈다.

앞으로 이方面의 研究에 一助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 하겠다.

발행일자	1973년 6월 일
발간업체명	주식회사 서라벌문예사
대표자	김재성
인가근거	내이 515.2-10803 (70.5.21)
참여자	북한문제연구회
	박재후

